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장광설

고토쿠슈스이

고토쿠슈스이
장광설
1902 년 2 월 20 일

長廣舌, 人文社
『長廣舌』이라는제목으로 1902 년 (메이지明治 35 년) 2 월 20 일에인
문사人文社에서간행되었다. 같은해에 『廣長舌』 (中國國民衆書社
역, 上海商務印書館) 이라는제목으로중국어로번역출간되었고, 1912
년에자판되었을때는 『社會主義長廣舌』 이라는제목으로소개되었다.

kr.theanarchistlibrary.org

1902 년 2 월 20 일

차례

울시한편으로마음을기록하여제목을대신한다	4
19 세기와 20 세기	5
혁명이도래한다	7
파괴주의인가폭도인가 (사회주의의실질)	9
금전을폐지하라 (사회주의의이상)	11
위장胃腸의문제 (사회주의가시급하다)	13
최근의노동문제 (사회주의의적용)	16
제국주의의쇠운	20
암살론	23
무정부당제조	26
위험한국민	28
월폴정책	29
일본의민주주의	31
외교상의비입현국	33
재정의대혁신	36
호전적인국민인가	38
후대받는병사	39
비전쟁문학	41
비정치론	43
이상없는국민	44
마비된국민	46
목적과수단	47
의무감	49
노인의손	50
문명을모욕하는자	51
이토후작의성덕	53
평범한거인	54
『수신요령』을읽다	55
자유당제문祭文	59
세모歲暮의고통	60
신년의환희	62
고등교육의권리	63

을 개량하여 모든 것에서 일정한 규율, 의식이 있게 해야 한다. 이것들이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양 요리점에서 열리는 연회는 어느 정도 이 이상에 가까운 것을 느낀다. 우리들은 굳이 음식이 일식인지 중식인지 양식인지를 묻지 않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서양 요리점과 같은 것을 희망함과 동시에 여기에 참석하는 인사들이 스스로 충분히 근신하여 행동할 것을 권고한다.

(〈宴會の不完全〉,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1 월 14 일)

연애문학	65
자살론	66
불완전한 연회	69

율시한편으로마음을기록하여제목을대신한다

(書懷一律代題詞)

한주정뱅이가고뇌에차서머리를긁적이며하늘에묻고자
(一醉搔頭欲問天)
높은누각에서또다시글로번돈을내던지네.
(高樓又賣擲文錢)
눈속의달빛을받아맺어진인연은삼생이지나도다하지않네.
(雪月三生未了緣)
땅을가르고떠들썩하게노래하는소년의호방함과,
(斫地浩歌少年俠)
꽃을들자미소짓는미인의깨달음이어.
(拈華微笑美人禪)
거기에따로종횡으로움직이는허가있으니
(箇中別有縱橫舌)
한가로이고향산의두고랑밭으로물러나네.
(閑却故山二頃田)

슈스이텐포지음 (秋水傳甫艸)

불완전한연회

요즘세상에다수가참석하는연회가품위와질서를갖추지못하고어수선하고살풍경하니정말놀라지않을수없다.

송별회든친목회든피로연이든축하연이든, 기타어떠한이름으로부르든, 이것은단지이름뿐이고내실은거의망각되지않은것이없다. 그들은각자마시고취할뿐이고멋대로노래하고어지러이춤추고농담을주고받을뿐, 다른것을모른다. 그러므로마시고취하고멋대로노래하고어지러이춤추고농담을주고받을수없는사람은연회에참석할자격이없는것처럼여겨진다. 예를들면송별회를열어볼까. 만약중요한주빈인데침묵하는사람이라면당장에배제되어돌아보는사람도없다. 또는술잔치가무르익어많은사람들을초대한주인이먼저취해버리면, 손님은할일이없어무료해지는경우가많다. 심한경우에는친목회석상에서옆에앉아있는사람에게는한마디도걸지않고오로지유녀遊女들과희희덕거리고방약무인하면서은근히부녀자의환심을샀다고자랑하는자가있다. 유녀패거리들은모두서로아는자앞에몰려가서다른사람을대단히쓸쓸하게만들기를밥먹듯이한다. 이와같이하여대개의연회는모두매우난폭하고난잡한추태를보이니, 열등한네다섯명을제외하면모두불평과불쾌함으로끝난다. 아아, 이것이연회의목적인가.

마시고또취하고자한다면혼자서마시고취해야한다. 어지러이춤추고멋대로노래하고자한다면혼자서어지러이춤추고멋대로노래해야한다. 하지만이것은애초부터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춤추고노래하는것을목적으로한장소와시간이되지않을수없다. 송별이나친목등특수한목적에있는교제위주의연회에서는목적에어긋나지않을만큼체면을갖추지않으면안된다. 품위와질서를지키지않으면안된다. 교제상예의와유쾌함이서로따르지않으면안된다. 일단잔만잡으면일장의연설조차도농담속에묻어버리는것은신사가가장부끄러워해야할일이다.

이상과같은점에서우리일본요리점에서열리는연회는우리나라의교제사회가하등한것임을드러내는가장치욕스러운것이다. 이악습을고치고자한다면, 우선연회방법, 음식의양, 시간제한, 급사들의안배와알선

자살이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결과며, 국가를 위해서 우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언할 수 있지만, 자살이 도덕적 죄악인가에 대해서는 연구할 만한 문제다.

자살이 부도덕하다는 것은 문명인 행세하는 선생이 흔히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서구 국가들에서도 아직 논쟁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 『효경』에는 “내 몸과 피부와 머리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헐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은 아무리 특별한 이유가 있어도 자살은 불효라는 의미는 아니다. 공자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룬다”고 하니, 인과 효는 서로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

서양에서 자살을 부도덕하고 죄악이라고 보는 설로서 유명한 것은, 인간의 목숨은 신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생사는 오로지 신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설령 인생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해도, 과연 자살이 신의 뜻과 다르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동서고금의 종교가 대개 자살을 장려하고 있다. 구약성서에도 신약성서에도 자살을 비난하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고대에는 기독교도들의 자살이 흔한 일이었다.

본래 자살죄악론자는 자살은 인간의 자연스러움을 거스른다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즐기고 죽음을 슬퍼할 터이다, 또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이상 그 사회를 위하여 다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 이것을 다하지 않고 멋대로 자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논한다. 그러나 반대로 자살은 인생은 반드시 자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약의 진보는 자연을 심하게 거스르는 게 아닌가. 또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건전한 것은 사회의 골칫거리니, 이들의 자살은 오히려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불치병에 걸린 자 따위는 얼른 자살하는 것이 좋다고 논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살을 신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결코 부도덕한 소행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지만, 건전하고 우등한 인간이 할 일은 아니다. 자살자는 대단히 나약하거나 대단히 바보거나 미치광이다.

사회는 경쟁에 의해 진보한다. 우승 열패의 자연도태가 이루어지므로 진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장안에 설 수 없는 불구자는 빨리 자살해 버리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하는 것이다.

이런 불구자 중에는 단지 세습된 부와 위계로 보호받으며 경쟁장 밖에서 안일을 탐하는 자가 많다. 이러한 자가 오히려 신과 사회에 대한 죄인이다. 적어도 나체로 밀어내서 독립자활할 수 없는 자는 죽는 편이 낫다.

일본에 자살자가 많은 것은 불건전한 인간이 많은 증거로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자를 굳이 살려 두어도 소용이 없다. 이제부터 해마다 5만, 6만 명씩 자살자가 생기고, 우등하고 건전한 인간만 남는다면, 일본도 크게 부강해질 것이다.

19 세기와 20 세기

19 세기의 천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정신을 남겼는가. 20 세기의 세월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물질들을 제시할 것인가.

역사는 인류 진보의 기록이다. 인류는 세대를 거듭하고 세월을 지나면서 지능과 도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축적했으며, 정신적 지위를 높이고 물질적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찍이 잠시도 쉬는 일이 없었고 결코 물러서는 일도 없었다. 무릇 제행(諸行)은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고 융성한 것은 반드시 쇠퇴하지 않는 것이 없다. 개인에게는 확실히 그렇다. 하나의 국가나 하나의 국민에게는 확실히 그렇다. 그것들은 부패하고 타락하며 약해지고 쇠퇴해서 사라진다. 그렇지만 세계 전체를 보라. 인류의 정신, 생활, 종교, 정치의 상태가 얼마나 급속히 진보하고 개선되었는가. 물이 증발하는 것을 보고 양이 줄었다고 하지 말라. 증발한 물은 이윽고 비와 이슬이 되어 오곡이 자라는 것을 돕지 않는가.

그렇다. 예로부터 문명은 결코 한 제왕, 한 국가, 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인류 전체의 복리를 위해 진보해 왔다. 문명이 빛을 비추는 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넓게 보충된다. 이로써 보아야 한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니키아 문명은 잠시 제쳐두고, 그리스 문명은 페리클레스(Periklēs, BC490?~BC429) 전성시대에만 전유(專有)된 것이 아니었다. 코딱지만한 유럽에서만 전유된 것이 아니었다. 로마는 그리스 문명의 정수를 지속시켰고 그것을 개선하고 확장하였으며, 18 세기에서 19 세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남북 아메리카로, 동아시아로, 아프리카의 남부 양 끝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보와 확장 방법 또한 마치 물건의 공중에서 낙하할 때 지상에 가까워짐에 따라 중력과 속도가 커지듯이, 올해는 작년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현저하게 가속화되어, 한 종족의 문명은 여러 국민의 문명이 된다. 여러 국민의 문명은 세계 전체의 문명이 되려고 한다. 그리하여 19 세기의 진보와 확장 속도는 실로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생각건대 20 세기의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빨라질 터이고, 그 첫해에 미개국이나 야만국이라는 이름이 지구상에서 거의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감히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더욱 더 진전될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음식, 옷, 기구의 성질, 상태, 효용이 점차로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문명이 미치는 판도가 확장됨에 따라, 또한 인류 전체의 복리 실현이라는 목적의 완성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천명의 복리에 적합한 문명은 1 억명에 적합할 수 없다. 그리스·로마의 문명은 노예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유럽의 문명은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18 세기 말의 문명은 귀족 전제주의를 허용했다. 19 세기의 문명은 귀족 전제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제국주의라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는 나아가 19 세기 후반 문명의 정신인 개인 자유의

데올로기를 압도하여 굳이 그것을 대신하려 한다. 이에 따라 오늘날 옳은 것이 내일 그른 것으로 바뀌는 느낌이 대단히 강하게 든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이것은 인류가 진보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길이며, 국민적 문명을 세계적 문명으로 만드는 치하할 만한 경향이라고.

19세기 문명이 개인 자유주의로 귀족 전제주의를 타파하여 인류를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한 공로는 참으로 위대하다. 이것은 문명 진보가 한 차례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 하지만 인류 문명의 목적은 개인의 복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리에 있다. 우리들의 진보는 자유 획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평등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유럽의 인민 가운데 재빨리 개인 자유주의에서 국민적 통일 결합 운동으로 나아가자는 실로 부지불식간에 그 기반을 굳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국민 통일주의에서 다시 확대라 제국 팽창주의가 된 것을 보면, 그것이 결국에 또 다시 변하여 세계 통일주의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니 세계 통일주의는 현재 문명의 조류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비록 19세기 자유주의가 정권의 불평등을 타파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지는 못했다. 자유 경쟁 제도는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하층 노동자는 그 폐해를 견디지 못한다. 일찍이 그들이 결합하여 정치적 질곡을 벗어난 것처럼, 이제 다시 자본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민적 결합주의를 개시했고, 더욱이 세계적인 운동으로 한 걸음 나아가 자본가와 활발히 부딪치게 되었다. 자본가들 역시 상호 경쟁의 폐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본을 합칠 필요를 느껴, 이른바 트러스트를 조성하여 해외 시장을 찾아 제국주의 자를 자칭하는 정치가와 손잡고 국민적 팽창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들이 개인의 자유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국민적 경쟁으로 나아가 갔다가, 또 다시 국민적 경쟁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극에 달하여 결국 세계적 결합 통일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대개 교통이 발달하고 문명이 미치는 판도가 확장됨에 따라 세계의 생활이나 이해 관계나 물가나 지식이나 도덕이 점차 평준화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리하여 유럽의 정치가 홀로 무력을 자랑하지 못하고, 서구의 자본가는 홀로 값싼 동양 노동자를 이용하지 못하니, 포악한 마음은 박애로 바뀌고, 경쟁의 수단은 협력의 결과로 바뀌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에서 국민주의로, 국민주의에서 제국주의로, 제국주의에서 세계 평화주의로 바뀌는 한편으로, 사회 경제적으로는 자유 경쟁주의에서 자본가 합동주의로, 자본가 합동주의에서 순수한 세계적 사회주의로 바뀌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다. 이리하여 아마도 인류 문명 진보의 역사가 비로소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대단히 고맙구나, 19세기여. 너는 정치적 자유의 복리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나아가 제국주의를 산출하여 자유 경쟁의 폐해를 바로잡으려 한다. 하지만 제국주의는 그저 우리가 세계적 사회주의에 도달하는 하나의 계단일 뿐, 우리들은 20세기 전반에 세계적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의 폐

지가 강한 자는 없다. 자살자가 많은 나라는 결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자살자가 1년에 9천 명에 가깝다는 것은 국가의 앞날이 우려할 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살자가 많은 것은 정신적으로 국민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민이 피폐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현상은 정치로도 군비로도 의회로도 치료할 수 없다.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상공업이 번성하는 데 달린 문제다.

목을 매서 죽는 자살자가 가장 많다는 것이 약간 흥미롭다. 자살자가운데 과반수는 교살이다. 그 다음이 투신 자살, 그 다음이 칼이고, 음독 자살이나 총같은 것은 매우 적다. 아마도 교살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에 문물 것이다. 투신 자살도 별로 필요가 없는 방법이지만, 동절기에는 별로 많지 않아 수치가 낮다. 이제 죽으려는 몸이라도 추운 것은 싫은 것 같다. 극약은 의학 생이나 직공의 동반 자살 정도에 한정된다. 그래도 해마다 100명 내외는 있는 것 같다.

자살은 확실히 일종의 병적 작용으로, 자살자를 많이 내는 국민은 결코 건강한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 예전에는 무사가 의로움을 위해 자살한다고 해서 대단한 명예처럼 생각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불완전한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저지른 불의나 죄악이 자살로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착각이라도 그렇게 믿으면 그나마 낫지만, 대부분은 단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번뇌한 나머지 발광하거나 발광하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자살하므로 어쨌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인간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병적 작용이 존재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죽고 싶어 서건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해도 남에게 저지를 당해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의 신에게 홀린 것이리라. 대체로 병적 작용만큼 이상한 것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외에 절도병이라는 것도 있다. 일종의 호기심 curiosity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싶어 서건딜 수 없다고 한다. 루소가 소년 시절에 별로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데도 절도를 한 것이 『고백록』에 쓰여 있다. 이것도 확실히 병적 작용임에 틀림 없다. 또한 연회에 가서 잔이나 술병이나 기타 다양한 것을 소매나 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일종의 호기심이 끓어 올라 거의 병이 된 경우다.

며칠 전 오쿠마 시게노부 씨가 어느 신문 기자에게 이토 히로부미 씨의 방탕함도 병 탓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들은 바로도 확실히 그렇다. 이토 씨가 닥치는 대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이제 생활의 필요 조건이 되었다. 술과 여자를 끊는다면 후작은 한 날 늙어 빠진 늙은이가 되고 만다고 어떤 유명한 의사가 말했다고 한다.

우리들은문학이당장에권선징악의도구가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이 아니고, 소설과시가를당장에윤리교육의용도로제공하자고하는것도 아니다. 하지만문학과미술을업으로삼는사람의이상은반드시선을추구하지않으면안되고미를추구하지않으면안되며진을추구하지않으면안된다. 오로지독자의쾌감을자극하는것을능사로할뿐이라고한다면, 이것은옛날에게사쿠작가의일에지나지않는다. 라쿠고가의일에지나지않는다. 강석사의일에지나지않는다. 이것이미술가나문학가다운것이겠는가. 하물며그들이짓고옳는것이날로많은청소년을타락시키고부패하게만드는것은의심할여지없는사실이다. 남의자식을해친죄악은도저히면할수없다.

전문미술가나문학가뿐만아니라신성한종교계에있으면서심한경우에는공공연히여성을조종하는방법을잡지에게재하거나생식기의작용을여학교강당에서강연하는자가있다는것은언어도단의행위라고하지 않을수없는데, 최근문예계취향이여기에이르니깊이슬퍼하지않을수있겠는가.

하지만우리들은함부로당국관리무리에게언론출판단속을엄중하라는것을촉구할수없다. 왜냐하면무식한그들은도저히육식을가리지못하여종래에항상문예의진보를저해하는결과를낳았기때문이다. 다만우리들은세상의정의를품고부패와타락을개탄하는인사가추하고외설적인문학에맹렬히사회적제재를가할필요를느낀다.

(〈戀愛文學の害毒〉,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7 월 7 일)

자살론

일본에서가장슬퍼해야할일은자살자가 많다는 것이다. 살해당하는사람은매년 1 천명남짓이지만, 자살자는해마다 7 천명이상으로자꾸늘어나는추세에있다. 1898 년에는거의 8,700 명에달했다.

일본에서는어떤측면에서보면자살이명예를의미했던시대도있었다. 하지만오늘날의자살은궁핍하거나회한에찬나머지발생하는것뿐이어서, 결국의지가박약함을나타낸다. 원래자살하는사람가운데결코의

단을모조리없애는것을두눈으로보게될것임을의심하지않는다. 얼마나희망찬일인가.

(〈十九世紀と二十世紀〉, 「日本人」 1900 년 (메이지 33 년) 12 월 10 일)

혁명이도래한다

음기가쌓이고아득한후에는곧한줄기별이다시온다. 장마로갑갑한후에는곧이글거리며타오르는여름햇살이라. 자연만물이탄생하고자라는것은실로이러한이치가있기때문이다. 사회에혁명이존재하는것도또한이와같다.

혁명이라는말을듣고당장에이것이불경하다고오해하지말라. 이것이모반이라고오해하지말라. 이것이시해라고오해하지말라. 이것이공화정치며무정부라고오해하지말라. 혁명은크롬웰의전유물이아니다. 워싱턴의전유물이아니다. 로베스피에르의전유물이아니다. 충성이올리고선혈이낭자한것만은아니다. 시민평등은사회적인일대혁명이었다. 왕정복고, 대의정체의성립은정치적인일대혁명이었다. 18 세기와학적산업기계의발명은산업상의일대혁명이었다. 시해를하지않더라도혁명은곧혁명인것이다. 철혈을사용하지않더라도혁명은곧혁명인것이다. 그런탓에페르디난트라살은“혁명은일종의전복이다. 혁명은완전히새로운차원의이념이기존제로나조직을대신하려고할때일어난다. 그리고고강한힘을사용하는것은결코혁명의필요조건이아니다. 그에반해개혁은지금의제도와조직을유지하면서다만그것을발달시켜더욱더융성하고유효하면서도정당한결과를얻게하려는것이다. 그리고어떤수단을동원하는지는그다지중요한문제가아니다. 개혁이란관과유혈로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혁명이오히려아주평화롭게일어나는경우도있다”고했다.

혁명이 정말로 새이념이 옛제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황은 더욱더 일대혁명의 기운에 놓인 것은 아닐까. 아니 일대혁명이 이미 아주 평화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첫번째로 정치를 보라. 부패가 극에 달하지 않았는가. 그들 내각이 행하는바, 중의원이 행하는바, 귀족원이 행하는바, 각정당이 행하는바를 보라. 완전히 번벌의 노예가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완전히 번벌의 사리사욕에 봉사하는 기구가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일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조직은 사실상 결코 자유의 제도가 아니고 대의여론의 제도도 아니며, 바로 과두전제의 참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 현실을 보고 어찌 더욱 진보된 새이념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룩하는 것은 일대혁명사업이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산업경제의 실상을 보라. 유럽의 산업혁명여파가 도도히 우리나라에 침입하여 생산비용은 극도로 줄어 들었고 생산액은 극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오로지 일부에 퇴적되어 사회 일반이 혜택을 입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또 보라. 빈부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 공황이 점점 더 빈번해져 간다. 투기가 점점 더 성행한다. 분배가 점점 더 나빠진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이제 완전히 일대도박장이 되어 버렸고, 정당한 사업가들 수용할 땅은 점차 사라진다. 우리들은 결코 생산의 대규모화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대규모화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오늘날 자유경쟁제도 아래에서는 규모가 오히려 사회인민을 몹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탓에 진정으로 산업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반에 미치게 하고자 한다면, 더욱 진보한 새이념에 따라 산업경제조직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일대혁명사업이 아닌가.

나아가 사회풍습과 교육의 실상을 보라. 이토히로 부미가 계급제도를 정하고 나서 유신혁명의 목적인 사민평등주의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오늘날 팔짱을 끼고 놀고 먹는 귀족은 유유자적하며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니 본받을 접이 없고, 사회풍속을 나날이 퇴폐로 몰고 갈 뿐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족전제의 제도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되고 형식적인 충군애국내글자를 교육의 이념이나 뼈대로 삼은 결과, 교육의 근간이 몹시 굴절되고 발달이 완전히 저해되어 사상계의 고루함과 혼미함이 거의 수백년 전으로 퇴보한 것 같다.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영속할 수 있는가. 또한 영속시켜야 하는 현상인가. 아니, 오히려 진보한 새이념으로 대체하는 것이 급무임을 느끼지 않는가. 그리고 이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일대혁명의 사업이 아니겠는가.

혁명은 본래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추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주의자가 말한 바와 같이 “혁명은 진보의 산파다.” 진보는 항상 혁명을 기다린다. 혁명이 있는 곳에 진보가 생긴다.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실상이 이미 혁명의 기운이 임박해 있음을 안다.

연애문학

어떤 미인이었다. 부호의 아내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해 화가 모씨를 연모했다. 하지만 화가는 자신의 여동생의 오랜 약혼자다. 그리고 그녀의 의붓딸도 이 화가를 연모하여 모녀와 자매가 한 남자를 두고 은밀히 서로 다투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그 집에게 식하던 일개 서생이 처음에 하녀와 통하고 나아가 미인 모녀를 연모하여 마침내 주인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은 최근에 저명한 작가 모씨가 쓴 소설의 줄거리다.

독자들이여, 이와 같은 문학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과연 어떠한가. 특히 지금 청소년의 심성에 끼치는 영향은 과연 어떠한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몸이 오싹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인륜을 혼란에 빠뜨리는 추하고 외설적인 이야기다. 이것을 노골적으로서 술하면 누가 눈살을 찌푸리고 구토하지 않았겠는가. 누가 이러한 이야기를 가정에서 들이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자 하겠는가. 하지만 인륜을 저버리고 추잡한 내용을 담은 소설이 공공연히 신문 잡지에 광고되고 비평되어, 세상의 청소년들이 앞다투어 환영하고 있는 것은 어찌서인가. 다름 아니다. 인륜을 저버린 추잡한 사건 조작 작가의 교묘한 표현으로 묘사된다. 여전히 독자에게 어느 정도 쾌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충분하기 때문이다. 빈축과 구토로 이것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쾌감을 느끼며 이것을 읽는 해악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단지 모작가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연애문학의 폐해가 심각한 것을 개탄하기 때문이다. 보라. 간다神田나 혼고本郷의 잡지가 게에가 보라. 거기에 배열되어 있는 서적의 태반은 연애, 부인, 정화情話 등의 글자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내용은 고금의 정화情話다. 연애의 시가다. 그리하여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읊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것을 장려하는 필법을 사용하는 자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구독하는 것은 대개는 미혼 청소년들이다. 아직 심하게 세상의 풍파를 만난 적이 없이 공상에 공상을 꿈꾸고 물들기 쉬운 것이 마치 흰 실과 같은 청소년들을 꿀과 같이 달콤한 색정으로 유혹하여 신성한 사랑이라 일컫고 고결한 사랑이라 부추긴다. 그리고 교묘하게 우주, 자연, 인생 등 고상한 문제를 끌어 들여 연애라는 두 글자와 섞어서 권하는데, 이것으로 말을 만드는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안다면, 청소년의 성정이나 날이 타락하여 문틈으로 작약을 넣어 두는 것이 크게 유행하는 것을 굳이 수상하게 여길 것도 없다.

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을 뽑는다. 그러므로 평소 애마무리 학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자급에 여유가 있어도, 시험 때 잘못 해서 1 등을 하지 못하면 나제의 불명예를 얻을 수 밖에 없다. 가령 100 명 가운데 10 명의 합격자를 낸다고 하면, 10 등과 불과 1 점이 모자라도 불행한 운명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진정으로 불행한 운명이며, 전혀 그 사람의 죄가 아닌데도 앞날이 완전히 끊긴다.

우리들은 근면하고 학력이 우수한 한 학생이 시험을 여러 차례 보고도 합격하지 못하여 낙담한 나머지 사기를 완전히 잃고 결국 타락한 것을 보았다. 우리들은 또한 한 학생이 죄를 자기의 학력 부족에 돌리며 과도하게 공부를 한 결과, 심신이 쇠약해서 폐병에 걸린 것을 보았다. 이것이 단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학 거절이 장래 우리 국민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폐단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이 아닐까.

국가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고 문명의 진보를 위하여 반드시 국민을 교육 시킬 책무가 있다. 가령 국민이 전혀 교육을 받을 뜻이 없어도 백방으로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아동의 소학교 입학률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미 소학교 교육을 강제하고 일반에게 중학교를 개방하여 충분히 고등 교육을 받을 자격을 양성해 놓고 그 후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불지각하다. 생각해 보라. 국가가 굳이 장려하지 않는 데도 고등 교육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사람이나 날이 많아지는 것은 국가의 경사다. 그런데도 거절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보면 통탄스럽고 한심할 뿐이다.

아니, 우리 국민은 상당한 학력을 가지고 상당한 학자금이 있는 이상, 균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 청년의 10 분의 9 는 교육 사회가 무시하고 교육 행정 당국이 무능한 탓에 중대하고 신성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국가는 그로 인해 해마다 10 분의 9 의 학자를 잃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은 지금 대학들이 항상 우리나라의 학술을 독점하여 고등 지식의 보급을 막는 경향이 있음을 개탄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나마 괜찮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들어갈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항상 불운함에 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견디지 힘들다. 입학을 허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거절하고 떨쳐 내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사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 이것이 어찌 세상을 다스리는 군자가 숙고해야 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게 사립 고등학교를 장려해야만 한다. 사립 학교에 관립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오로지 관립으로만 향하는 일념을 바꾸어야만 한다. 그렇다. 대체적인 방침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상세한 것은 더 논할 필요가 없다.

(〈高等教育の拒絶〉,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9 월 6 일)

다만 그것을 선혈의 혁명으로 만들지, 평화의 혁명으로 만들지는 국민의 준비여하에 달려 있다.

(〈革命論〉,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5 월 18 일)

파괴주의인가 폭도인가 (사회주의의 실질)

고운 구슬이 어둠 속으로 던져지면 사람들은 모두 칼에 손을 댄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 그들은 아직 사회주의의 진상이나 실질이 어떠한지 돌아볼 틈은 없고 단지 눈과 귀에 익지 않은 탓에 들떠서 외치며 말하기를, 사회주의는 파괴주의고 사회당은 폭도라고 한다. 이를 마치 전염병을 대하듯 두려워하고 배과전갈을 대하듯 꺼린다. 아아, 그것이 어찌 파괴주의인가, 그것이 어찌 폭도인가.

예로부터 적어도 사회의 진보를 추구하고 개혁을 희망하는 논의와 운동이라 하면 하나 같이 어느 정도 파괴적 수단에 기대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오로지 파괴적 수단에 기대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최악시한다면 대개 천하에 새로운 것으로 옛것을 대신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가령 여기에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당신의 가옥은 썩었다, 마땅히 그것을 개축해야 한다, 당신의 옷은 티끌과 먼지로 가득하다, 마땅히 그것을 세탁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모조리 파괴주의로 여기고 폭도로 여길 것인가.

하지만 세상일에 어두운 무리, 겁을 내며 잡사의 안락함을 탐하는 패거리가 진보와 개혁을 너무 혐오하여, 새이념을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얼핏 보고 파괴주의라 규정하고 폭도라고 부르며 백방으로 박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은, 동서고금으로 껴맞는다. 그런 탓에 일찍이 천황을 섬기고 막부를 타도하자는 논의가 일어나자, 막부 말기의 관료들은 파괴주의라 꾸짖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폭도로 몰며 박해를 일삼았다. 안세이의 의욕에 이르러서는 진시황 이래의 비참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가. 일찍이 자유민권설이 일어나자, 번벌 정권의 관료들은 그것을 꾸짖어 파괴주의라 규정하고 자유민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폭도로 몰며 박해를 일삼았다. 보안조례 공포에 이르러서는 나폴레옹 3 세 이후의 횡포함이 일

마나극에달했던가. 하지만보라. 우리일본국민으로하여금봉건지배계급의질곡을벗어나사민평등의경지에들어서고, 전제억압제도를버리고입헌대의의치세를만나국위, 국광을태평양앞바다에찬연히빛나게한것은바로당시의파괴주의, 폭도가아니었겠는가.

무릇세상의허다한새이념, 새운동가운데일시적인파괴주의나폭도에지나지않은것이있다면, 그성질이과연진정으로사회의진보와개혁을위해서급하고적절한것이겠는가. 당시일반민민의눈과귀에익숙하든익숙하지않든간에, 당장이라도넌리퍼질듯한기세가팽배하여마치커다란제방을무너뜨리는것처럼, 수천의공격, 수만의박해가결국에아무렇지도않은것이사회의진보와개혁이다. 기독교의개혁이그러했다. 니치렌종日蓮宗의발흥이그러했다. 유럽대륙에서자유제도의창립이이러했다. 국물법폐지운동이그러했다. 선거구개정안이그러했다. 노예금지운동이그러했다. 아니, 속된인사들이속된주장으로공격하고박해해도아무렇지도않았을뿐만아니라, 공격과박해가한층가혹해질수록반동또한한층거세져서오히려그들의성공을재촉하고, 나아가그성공의여세가에촉불허의참상을낳는일도있다. 루이 16 세는그래서참수당했다. 메테르니히는그래서쫓겨났다. 한심함의극치다.

우리들은당분간사회주의의본질이과연오늘날의사회상태에서의적절한지그렇지않은지를다투지말아야한다. 그렇지만유럽과미국영대륙에서사회주의가아무리가혹한진압에직면해도파발을두어명령을전달하는것만큼빠르게퍼져나가고불꽃들이비를맞으면서자라는것처럼세력이커지는형국을보면, 대단히답지않았는가. 그런데도우리국민가운데완고하고몽매하여새로운것을싫어하는무리들은막연히이것을파괴주의라고부르고폭도라부르거나, 겁을내며안락을추구하는인사는이에부화뇌동하여진압과전멸에바빠서시간이부족할정도다. 심한경우에는최근에노동문제해석을위해분주히논의하는사람들조차도대개는사회주의를입에담기를꺼리는데, 사회주의를외치면중상류사회의동정을얻을수없어서운동이매우곤란하기때문이라고말한다. 이리하여사회주의에쏟아지는공격과증오, 기탄은결국눈곱만치도사회주의의진상과실질여하와관계없이오로지무식함과고루함, 안락함에안주하는것이다. 진정으로천하의기운에응하는사회주의자라할수있겠는가. 넓은가르침의전파는그들이결코방해할수있는바가아니라하더라도, 그들이말하는바는오히려문명국민으로서일대치욕이아닌가. 나는우리국민이사회주의를증오하고박해하기전에우선깊이연구하고익힐것을갈망한다.

(〈破壞主義乎亂民乎〉,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9 월 13 일)

의즐거움이어찌당연하지않겠는가. 사람과사회가이미정의로운데어찌자유롭지않겠는가. 그렇다. 새해의천지만큼자유로운것은없다. 새벽닭이한번새해를알리고일주일동안금전이우리를누르지않고권세가우리를괴롭히지않으며이욕이우리를빼앗지않으니, 하늘을우러러홀로서서천지에구애받지않고속박이나장애가없이마음대로일뿐이다. 사람과사회가자유를얻었다. 새해의즐거움이어찌당연하지않겠는가.

이미자유가있는데평등이없어서되겠는가. 집집마다문앞에세운소나무는크기가다를뿐, 세계는평등하다. 주인의새해일뿐만아니라, 하인도새해인것이다. 깃털공을치며노는하고이타채羽子板에먹을칠하는것은하녀와귀족의따님을불문한다. 연날리기는견습공과도련님을불문한다. 계급은완전히제거되고차별은완전히사라진다. 한자리에서서로화목하고즐거울뿐이다. 한집안에서화평하고즐거움이넘쳐흐를뿐이다. 이로써평등을얻었다. 새해의즐거움이어찌당연하지않겠는가.

인생의목적은정의로움에있다. 자유로움에있다. 평등함에있다. 오로지이셋을얻으면인간은성인이고사회는천당이다. 해마다인간이죽음에다가가면서도여전히새해를즐기는까닭은여기에있기때문이야닐까. 다만이것이있다면새해가아니라도새해처럼즐거움을얻을터이다. 하지만아아, 1 년 360 여일중이일주일을제외하면정의가없고자유가없고평등이없는천지가인생에끊임이없는것은본래누구의허물인가.

(〈新年何故に樂しき乎〉,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1 월 5 일)

고등교육의권리

최근에우리문명의진보와국가의부강을위해통탄해마지않는큰문제가있다. 이문제는나날이우리를압박하여해석이시급하다. 무엇인가. 바로국민이고등교육을거절당하는것이그것이다.

고등학교입학을희망하는자는해마다늘어난다. 그런데입학허가를얻는자는항상수험자의 10 분의 1 에못미치고 10 분의 9 는거절당한다고한다. 이유를물으면, 단지고등학교수가적고설비가부족하여다수

지사들에게고한다. 세모의고통은오로지부의분배가불공평한데서비롯된다. 분배의불공평함은오로지자본가의전횡에원인이있다. 자본가의전횡은자본의사유를허락하는데있다. 일찍이다수의단결된세력으로정치적권리를봉건제후한데서빼앗고사초번벌정부한데서빼앗아평등하게사회에나누었던이들이, 어찌경제적권리를자본가의손에서빼앗아평등하게사회에나누지않는가. 당시의존왕토막당尊王討幕黨이나자유개진당自由改進黨은어찌한발더나아가민주적사회당이고자하지않는가. 이것은웃어른을위해나뭇가지를꺼어드리는것과같은일일뿐이다. 태산을옆에끼고북해를뛰어넘는불가능한일이아닌것이다.

(〈歲末の苦痛〉,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12 월 17 일)

신년의환희

즐거운새해. 새해의즐거움은문앞을장식하는소나무가있기때문이다. 소나무가없는집도즐거운법이다. 도소주가있기때문이다. 도소주가없는집도즐거운법이다. 돈이있기때문이다. 좋은옷을입기때문이다. 흥분紅粉으로화장하기때문이다. 돈없고좋은옷도없고흥분이없는사람도즐거운법이다.

나와남과사회가죽음을향하여 1 년을다가가서모두흐르는세월의빠름을깨닫지않을수없는데도, 기꺼이새해를즐길수있는까닭은무엇일까. 다름아니다. 이때야말로나와남과사회가모두함께정의롭조자유롭고평등할수있기때문이다.

사람은각각양끝을가진다. 세상에완전한선인이없다면또한완전한악인도없다. 다만평소에는수많은경쟁, 수많은유혹, 수많은흥분을접하기때문에대개선을드러내기도하지만또한악도드러낸다. 선악이항상서로싸우고이해가항상서로다투는것이거의평생동안계속되어끊임없다. 그런데이경쟁, 유혹, 흥분이제야의백팔번의종소리와함께완전히멎고, 만인은허심탄화해진다. 마음이넓고몸이편안하여이해관계가끼이지않고, 이로써움직이고생각하고듣고보고말하는것이오로지선이있고정의가있을뿐이다. 천하에추호도부정과비리가드러나지않는다. 새해

금전을폐지하라 (사회주의의이상)

병균이사람의혈액에섞여점차로육체를값아먹는것처럼금전이세상에서무한만능의세력을떨치는한, 세도世道는갈수록피폐해질것이다. 풍속은갈수록쇠망으로치달을것이다. 인심은갈수록부패로향할것이다. 그리하여사회는결국망하여멸망에이르지않고는끝나지않으니, 공창제폐지를주장하는자여, 신사의타락을분노하는자여, 풍속개량을부르짖는자여, 도덕의왕성함을추구하는자여, 우리들은오늘날과같이한편의도덕서를얻든한나절의설교를듣든, 여전히금전을필요로하는날에는여러분의천마디만마디교훈도완전히무익함을알것이다. 누구든스스로원해서천한기생이되는자는없을것이다. 누구든풍속의개량, 도덕의왕성함을바라지않는자는없을것이다. 그런데도그렇게될수없는까닭은오로지금전때문이다. 그러므로여러분은열심히혀를것무르게하고붓이닿게하기보다도우선스스로금전만능의힘을휘두르는것이더나을것이다. 만약금전을가지고있지않다면금전만능의힘을절멸시키는것이더나을것이다. 다시말해서세상에서금전의필요를없애지않는다면결코세상의도와인심을유지할수는없을것이다.

금전이없으면사람은살수없다. 이것이세상의실제다. 그렇지만오늘날의부패한사회라해도아무도이것을정의라민지는않을것이다. 진리라민지는않을것이다. 사람은진실로금전의바깥에서살지않으면안된다. 금전의바깥에세력이있고명예가있으며, 권리가있고의무가있다. 거기에빵과복이있지않으면안된다. 그런데지금금전은실제로무한만능의힘을지녔다. 진리는결국실제로나타나지않으면안된다. 정의는결국실제로행하지않으면안된다.

시험삼아금전이하루아침에폐지되었다고하자. 필요가완전히없어졌다고하자. 사회는얼마나고상해질까. 얼마나평화로워질까. 얼마나행복해질까. 뇌물, 매수, 매절買切은완전히흔적을감출것이다. 살인강도, 간음은태반이줄어들것이다. 공창제폐지를부르짖을필요가없다. 풍속개량을설파할필요가없다. 당장에이곳이정도이고천당이니, 성쇠란자연의숫자다. 예로부터인도, 이집트, 그리스, 로마문명에서만약금전의존재가없었다면, 그수명이수천년은더유지될수있었을것이라민는다.

다만금전의세력이지금과같은때에금전폐지라는말을꺼낸다면, 세상사람들은우리를보고미쳤다고할것이다. 미쳤는가, 정말로미쳤는가. 세계도처에충만한유럽최신의사회주의는모조리미쳤을까. 사회주의자는금전폐지, 자본의사유私有有절멸을이상으로삼았다. 그들은인간과사

회가금전밖에살기를바라기때문이다. 금전바깥에세력, 명예, 권리, 의무가있기를바라기때문이다. 이것이진리다. 이것이정의다. 진리와정의가과연실제로행할수있는것이라고한다면, 사회주의실행이어찌어렵겠는가. 그렇다, 불가능한것이아니라이루려하지않는것이다.

우리들은본래단순한교환개, 가격표준으로서금전을부정하지않는다. 그효용을도량형이나철도승차권이나의사의처방전같은것에지나지않게한다면그것이희든누렇든등글든네모났든, 친구황후를웁기든스가와라노미치자네를그리든추호도폐지할필요를느끼지못한다. 다만, 어찌겠는가. 금전은본래의효용이나목적이상으로무한만능의세력을떨치며인심을부패시키고풍속을어지럽히고자유를파괴하고평등을교란하고사회와국가를망하게하지않고는끝나지않는다. 그러므로우리들이금전폐지를부르짖는것은오늘날의이른바‘금전’의의미를절멸시키는데있다. 다시말해무한만능의힘을절멸시키는데있다.

그런데금전폐지는어떻게이룰수있는가. 오로지자본의사적소유를금하는데있을뿐이다. 왜냐하면오늘날금전이무한만능의힘을누리는까닭은개인이그것을생산자본으로자유로이사용하기때문이다. 보라. 그들은금전을자본에투자한탓에, 배불리안락한생활을하며손가락하나움직이지않고토지, 기계, 노동의세요소에서생산된부의대부분을혼자서빼앗을수있는것이아닌가. 그리하여그들은빼앗은부를가지고더욱더자유로이토지와노동을매수하여끊임없이생산의대부분을빼앗을수있는것이아닌가. 금전을생산자본으로삼아자유로이사용하는한, 부는자연스럽게한사람의손에축적되고분배는점점더균형을잃어빈부격차가점점더벌어진다. 그리하여금전에대한사회의욕망이한층맹렬해지면, 다시그만큼금전의세력은커진다. 그리하여그것이극에달하면‘금전’이라는무한의세력을가진자는홀로명예와권세와부귀를독점하여사회는완전히타락해버린다. 이것을공평하다고할수있는가. 정의라고할수있는가. 하지만이것이오늘날의실상이아닌가.

더구나금전은직접적으로생산자본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단지토지, 기계, 물품의가격표시에지나지않는다. 토지나생산기계를사회공공의소유로 옮겨만인이똑같이생산에종사한다면금전은단지생산된물품의분배에필요한매개표준에지나지않으며, 그효용은도량형에지나지않는다. 승차표에지나지않는다. 의사의처방전에지나지않는다. 어찌오늘날과같은세력과해독이있을수있겠는가.

무릇이세상에태어나서일하지않는자는먹을수도없다. 이것은천지의가장중요한법이다. 지금금전으로자유롭게토지와기계와노동을매수하게하기때문에, 다시말해개인으로하여금금전을생산자본으로자유로이사용하게하기때문에금전을가진자는모두무위도식한다. 단지무위도식할뿐만아니라나아가타인의의식주대부분을빼앗아낭비하고있지않은가. 이것은석가가크게개탄하고, 예수가통분한일이다. 그런데도그들

기나협박, 도적이나살인이그하루의고통때문에발생하여사회에백년의과실過失을남기기에이른다.

인류는영원히이와같은고통을견디지않으면안되는가. 사회선각자지위에있는인사는영원히다수인류의고통과문명진보의저해를묵시할수밖에없는가. 아니방관할수있는가.

말하지말라, 이것이사회의자연스러운상태라도저히제거할수없는고통이라고. 어째서그런가. 만약이것을자연스러운상태라고할수있다면인간에게질병이있는것도자연스러운상태가아닌가. 생리학과의학술의진보는질병을고칠수있게한다. 문명의진보가유독인류의사회적고통을제거할수없다는것이이치에맞는가. 그렇다. 우리들은제거할수있을지없을지단정하기전에우선가장중요한원인을엄격히조사해야할것이다.

그렇다면대다수인류가세모에고통받는원인은무엇인가. 그것은대단히잘보인다. 그들은금전결핍으로궁지에몰려있을뿐이다. 그들의고통을제거하고자한다면, 단지그들에게금전을얻게하면된다.

그런데그들은금전을얻을길이없는가. 아니다. 그들대다수는실제로매일부의생산에종사하고있지않은가. 그렇다면사회는과연그들의궁핍을구할만한금전을가지고있지않은가. 아니다. 부호의창고는막대한부를저장하고있지않은가. 부는이미 많다. 더욱이부를생산하고늘릴길도이미구비되어있다. 그런데도무엇때문에부를대표하는금전에궁핍한자가이렇게 많아졌는가. 이제야우리들은알게되었다. 그들이겪는세모의고통, 견딜수없는고통, 방관하기힘든고통은, 오로지부의분배가공평하지않아서단지소수의손에부가축적된데원인이있음.

그렇다. 오늘날의사회는부의분배에서공평함을잃었다. 부의대부분은, 그것을생산하기위하여노동하는다수인민에게돌아가지않고아무것도하지않고놀고먹는소수자본가의손에들어간다. 이것이옳지않고도리에어긋난것임은본래따질필요도없는일이지만, 그래도자본이개인의손에사유되고생산사업이자유경쟁에방임되는동안은도저히피할수없는폐단이라는점은, 서구의의롭고어진지사들이이미통절히논했고또한우리가평소에절규했다. 그러므로부가일부에축적되는것을막고자한다면, 우선토지와자본을자본가의손에서 옮겨다수인민의공유로돌리지않으면안된다. 이와같이된다면생산된부는비로소공평하게분배될뿐만아니라, 자본가도아무것도하지않고놀고먹을수는없으니, 사회전반의생산액은더욱더증가할것이다. 다수인류가어찌세모의고통을맞볼필요가있겠는가. 그렇다. 그들이영원히세모의고통에서벗어나는길은오로지자본의공유하나뿐이다. 이름하여사회주의제도다.

우리들은지금사회주의논리의세목을강연할틈이없고또한실행수단과방법을자세히설명하는번잡함을피하고자한다. 하지만진실로많은인민의복리를위하여사회문명의진보를위하여몸바치려는어질고의로운

북은겐무建武의중흥보다위험하여당장에야만적전제의강적에게정복되었다. 그리하여그대의영광스런역사, 명예로운사업은지금편안히있는가.

또한생각한다. 나는어려서하야시유조 (林有造, 1842~1921) 군의집에거했다. 어느날밤한풍이세차게불어대는저녁에, 삿초薩長정부가갑자기하야시군과나를불잡아도쿄 3 리밖으로쫓아냈다. 당시여러분들의머리카락이치솟았던상태가돌연히눈에어른거려잊히지않는다. 그리고보라. 지금여러분은퇴거령을발포한총리였던이토후작, 퇴거령을발포한내무대신야마가타후작의충실한정우政友로서그대자유당이죽는것을지켜보는행인과같고, 나는단지뫼한자루와세치혀뿐이지만, 여전히자유와평등, 문명과진보를위해분투하고있음을. 그대자유당의시체를매달아영혼을기리면서우리는어찌옛날을그리며지금어루만지는정기없을수있겠는가. 육유 (陸游, 1125~1210) 가일찍이검각劍閣의봉우리들을바라보고개탄하면서“은평陰平의궁지에몰린적을막는것은어렵지않으나, 이렇게강산이공연히사람을불드네”라는노래를불렀다. 아아, 전제주의자라는궁지에몰린적은막기어렵겠는가. 하지만영광스러운그대의역사는이제완전히말살되었다. 우리는다만이구절을움으며그대를매달뿐이구나. 그대자유당에만약영혼이있다면정말로와서잔치를벌이라.

(〈自由黨を祭る文〉,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8 월 30 일)

세모歲暮의고통

고인이“기약없는세상의기약”이라고한세모歲暮가왔다. 사람이돈을얻으려고해도얻지못하여고뇌하고후회하고두려워하며낭패를보고바쁘게뛰어다니는것이어나지금이나똑같다.

우리인류가세모의고통때문에빠앗기는행복이과연어느정도일까. 사회문명이세모의고통때문에저해당하는진보와발달이과연어느정도일까. 그로인해많은시간이쓸모없이소진된다. 많은건강이그로인해손상을입고, 많은면목이그로인해굴욕을당하고, 심한경우에는커다란사

은아직자본사유의금지에생각이미치지못했다. 그들이이것을단행하지 못할만큼오늘날의세상이말세는아님을믿는다.

그렇다. 우리들은다시한번말한다. 금전무한만능의힘을절멸시켜사회적타락을구하고자한다면, 마땅히신속히오늘날의경제제도를개혁하여생산자본을사회공동의소유로옮겨야한다. 이것을사회주의적개조라고하며근대사회주의자는이것을유일한이상으로삼는다.

천하에인심을밝히고세상의도의를유지하고자하는자는어찌구구히지엽적논의를그만두고우선사회주의의실행에힘쓰지않는가. 이것이여러분이그목적을달성하는가장빠른지름길이다. 아아, 19 세기는자유주의시대였다. 20 세기는장차사회주의시대가되려고한다. 천하의유망한자들은다만이새로운기운을뚫어볼필요가있다.

(〈金錢廢止の理想〉·〈禁轉廢止の方法〉,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2 월 9 일·22 일)

위장胃腸의문제 (사회주의가시급하다)

아아, 어리석은교육자여. 세상물정에어두운종교인이여. 우둔한정치가여. 그대들은날마다신문 3 면기사를읽고있는가. 그대들이전심전력으로목청을쉬게하고심기를소모하며열심히윤리를풀이하고도덕을설파하고치국평천하를강구하는데도, 한편에서얼마나우리나라사회질서가문란하고풍속이타락하고사기, 분쟁, 뇌물, 간음, 도적, 살인기타 모든부덕한죄악이한치의거리낌도없이갈수로유행하고있는지를생각하면, 그대들은자신들의설득력있는설법, 고상한교훈, 세심한제도의효과가미미한것에어이가없을것이다. 실망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대들의배움이얕은것이아니다. 그대들의앎이적은것이아니다. 그대들의열성이부족한것이아니다. 그런데도효과가없는것은, 마치떨어지는물방울로수레에실린장작에불은불을끄려고하는것과같은데, 그토록사회적타락이심한까닭은과연무엇인가. 그대들은이사태를이해할수있는가.

인간이빵만으로사는것은아니다. 하지만또한하루라도빵없이사는살수없다. 학생에게생활을위해배우지말라고할것인가. 시인에게생활을

위해시를 쓰지 말라고 할 것인가. 상인에게 허위 광고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자살을 강요하는 종교나 교육에 과연 누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겠는가. 사람이 첩이 되는 것도 먹기 위해서다. 정치 활동가 壯士가 투표를 사는 것도 먹기 위해서다. 의원이 절개를 파는 것도 먹기 위해서다. 이것을 금하고자 한다면 따로 먹는 길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에서 과연 먹지 않고 덕의 德義나 인도 人道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어차피 인생의 첫 번째의미는 위장의 문제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만사 만물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을 것이다. 공자가 일کن기를 백성을 부유하게 한 뒤에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미다.

지금 우리 국민의 위장 문제는 과연 완전하고 정당하게 해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우리 동포는 완전하고 정당하게 먹고 있는가.

예쁜 옷을 걸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항상 소비 자지 생산 자가 아니다. 일거에 수천 만의 부를 얻는 것은 항상 투기꾼이지 생산 자는 아니다. 일개 정당 이토지세를 늘리거나 우편 선 회사를 보호 하여 수십 만 금을 취득하는 반면, 수만 명의 노동자는 해마다 조세 체납 때문에 경매 처분을 당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정당한 육체 노동으로 1 센을 얻거나 또는 얻지 못하는 동안에, 부정 한 사업을 하는 자는 100 금을 얻는다. 많이 정직 할 수록 그만큼 많이가난하고, 많이 간계 할 수록 그만큼 부유해지는 것을 보면 누가 함께이 쪽으로 향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부의 분배가 갈수록 부정해지고 생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서 신문 3 면을 부덕 과 죄악으로 채우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상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구하는 길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백 가지 교훈이나 제도도 결국 무익하고 어리석은 임시 변통 일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 위장 문제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처럼 의롭지 못하고 부정하고 불완전한 것은 무엇때문일까. 우리는 단연코 이것은 개인주의적 제도의 폐단이 자 자유 경쟁으로 발생하는 해독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경쟁은 사회 진보의 원천이라고 한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도 그것의 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교섭하는 동물이다. 경쟁이 있음과 동시에 통일이 없으면 안 되며, 한 개인이 스스로 살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다른 개인을 살릴 의무 또한 있다. 만약 경쟁이 있는데 조화가 없고, 차별이 있는데 통일이 없다면 생존하고 다른 생존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면, 개인이 진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적자 適者는 진실로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경쟁 또 경쟁의 끝에 적자는 더 고등한 적자에게 눌리고 우자 優者是 더 고등한 우자에게 꺾여서, 단지가 장고등한 우자, 적자만을 남길 뿐이고 다른 수천 만은 모조리 타락하고 모조리 쇠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인간 사회, 문명 진보의 목적이겠는가. 아니, 수천 만의 타락과 쇠망의 끝에는 가장 고등한 우자, 적자도 스스로 지 못한다는 것이 필연의 이치다. 현 사회의 추세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에 있지 않은가.

자유당 제문祭文

해는 경자 庚子년 8 월 어느 날 밤, 금풍 金風이 서늘 피 불고 이슬이 하얗고 하늘이 높을 때, 별 하나가 홀연히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아, 자유당이 죽었는가. 그리하여 그 광영의 역사는 완전히 말살되었다.

아아, 그대 자유당이여,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20 여년 전 전제와 억압의 참혹한 독이 도도히 사해로 흘러 넘치고 유신 중흥의 커다란 계획이 크게 좌절되었을 때 하늘에게 신조 祖宗의 영혼은 환히 그대 자유당을 대지에 내려서고 고한 목소리를 드높이고 굶은 빛을 휘날리게 했다. 그리하여 그대의 부모는 우리 건곤에 가득한 자유 평등의 정기였다. 세계를 뒤흔든 문명 진보의 대조류였다.

이로써 그대 자유당이 자유 평등을 위하여 싸우고 문명 진보를 위하여 싸울 때, 의로움을 보고 나아가 바른 길을 밟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 번을 굴하지 않고 백 번을 꺾이지 않는 의연한 의기와 정신은 진정으로 추상 열일 秋霜烈日의 감개가 있다. 그리하여 이제 편안히 있는가.

그대 자유당이 일어나자 정부의 억압은 더욱 더 심해지고 박해는 더욱 더 급했다. 언론은 속박 당했다. 집회는 금지되었다. 청원은 방지되었다. 그리하여 포박, 추방, 투옥, 교수대. 하지만 그대는 정확 鼎鑊을 보기를 잊지 않았다. 수만 금의 재산을 탕진하고 후회하지 않았다. 수백 명의 생명을 손상시키고도 후회하지 않았다. 어찌 이것이 그대가 한 가닥의 이상과 신앙을 굳게 지니고 천고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하여 지금 편안히 있는가.

그대 자유당은 이와 같이 당당한 장부가 되었는데. 수많은 어질고 의로운 지사들의 오장을 찢낸 뜨거운 눈물과 고운 피는 그대 자유당의 양식이었다. 전당이였다. 역사였다. 아아, 타모노 나무라 마쓰나바바 나카이 처럼, 뜨거운 눈물과 고운 피를 흘린 어질고 의로운 지사들은 그대 자유당의 앞날이 광영으로 빛날 것을 상상하고 의연히 웃음을 머금고 죽음을 받아들였다. 당시 누가 알았겠는가, 그들이 죽고 자유당도 죽으리라고. 그들의 뜨거운 눈물과 고운 피가 원수인 전제주의자의 유일한 장식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아아, 저 뜨거운 눈물과 고운 피는 붉은 빛이 빠지고 푸른 빛이 바랬는데, 지금 편안히 있는가.

그대 자유당이여. 처음에는 성현의 뼈와 영웅의 쓸개에 눈은 일월 日月과 같고 혀는 벽력과 같아 공격하여 잡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이로써 일단 입헌 현대의의 신 천지를 개척하고 건곤을 알선하는 위업을 세웠다. 하지만 그대는 성공을 지키는 재능은 없었다. 그전

개사회에 대한 배덕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으니, 우리들은 이것을 깊이 두려워 한다. 설령 이 기주의가 되지 않더라도 고답적인 은자가 될 뿐이다. 백이(伯夷)도 독립자존이었다. 엄자릉(嚴子陵)도 독립자존이었다. 사마휘(司馬徽, 173~208)도 독립자존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어찌 오늘날 사회가 바랄 만한 사람인가.

『수신요령』도 마찬가지로 박애를 말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을 사랑하는 정을 넓혀서 타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미덕이다”라고 하는데 그쳤다. 그렇다. 자신을 사랑 애己하는 마음이 타인에게 미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도 아직 이기심을 벗어날 수 없다. “타인의 권리와 행복을 존중한다”도 “남과 교제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도, 모두 ‘독립자존’을 위해서라고 한다. 이기심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어찌 진정한 도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인간의 도덕은, 마치 니가 말한 바와 같이, 개개인이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있다. 보상을 바라는데 있지 않다.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쫓아서 달리는 것과 같을 뿐이다. 조금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려면 자신의 몸과 집안의 행복도 버려야 한다. 재산과 생명도 버려야 한다. 이리하여 비로소 대군자도 나오고 대개혁자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자존의 가르침은 반드시 조화평등의 덕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애自愛의 마음은 반드시 박애의 마음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조화평등의 덕이 독립자존을 통제하지 않고 박애의 마음이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독립자존, 개인자유주의는 바로 부덕한 이기주의가 된다. 혐오할 만한 약육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의 실상이 아닌가.

그렇다. 오늘날의 근심은 개인주의의 폐단이 극한에 이른 데 있다. 이기주의가 성행하는데 있다. 자유경쟁만 있고 평등조화가 없는 데 있다. 개인은 있어도 국가가 없고, 국가는 있어도 사회가 없다. 다시 말해 사회에 대한 공의와 공덕으로 자기 한 몸을 규율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한 몸의 이해득실로 사회의 복리를 좌우하려고 하는데 있다. 이러한 때에 사회적 평등조화, 공의와 공덕을 설파하지 않고 개인의 독립자존만을 가르치는 것은 불을 끄려고 기름을 붓는 꼴이다. 그 결과가 걱정스럽다.

우리들은 세상의 곡학曲學하는 사람처럼 단지 충효의 두 글자가 없는 것 때문에 멋대로 『수신요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정한 사회적 관념으로 국가나 사회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여 있는 힘을 다하는 의용봉공義勇奉公의 마음을 장려하는 조목이 없음을 애석해 한다. 만약 과연 이것이 있다면 충효는 저절로 그 안에 있을 뿐이다.

(〈修身要領を讀む〉, 「萬朝報」 1900년 (메이지 33년) 3월 6일 ~ 7일)

과학이 진보함에 따라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물이 얼마나 놀라운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지는 이미 우리들이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여전히 한편에서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서 인간은 오로지 생활의 경쟁에 분주한 나머지 위장이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그 원인은 자유경쟁 제도가 경제계를 무조직과 무정부상태로 빠뜨린 데서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다. 봉건세계에서는 개인의 진보가 없었다고 해도 만인의 안심은 있었다. 개인의 자유가 없었다고 해도 만인의 통일이 있었다. 위장의 문제는 정당하고 비교적 완전하게 해석되었다. 그래서 무사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도덕도 있었고 신용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자유진보의 세상은 위장이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개인경쟁이 경제사회에 끼치는 폐해는 우리가 일일이 상세하게 서술할 여유가 없지만,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고 또한 매우의롭지 못하고 부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첫 번째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져서 생산이 낭비되는 것이 두 번째다. 운수교통기관 등의 독점적 사업이 경쟁에 회멸려 결국 국한 개인이나 한 회사에 합병되는 것이 세 번째다. 광고경쟁과 상업적 여행이 거액의 부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고객을 기만하는 해독이 네 번째다. 생산이 향상과 잉여거나 부족하여 수요공급이 자주 균형을 잃는 것이다 다섯 번째다. 그리하여 그 결과 관공업이 위기에 처하고 공황이 발생하며 물가의 고저가 일정치 않고 결핍, 기아, 악덕이 초래되는 것이 여섯 번째다. 이리하여 경제계는 완전히 무정부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다. 무정부다. 간계와 폭력의 경쟁에 일임한다. 오로지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결과에 일임한다. 이때에 자본가의 횡포를 탓하지 말라. 그가 횡포하지 않으면 다른 자본가에게 눌리는 것이다. 금전이 없는 자는 명예가 없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주도 없다. 그리하여 금전이 자유경쟁, 부정불의의 경쟁에 일임된다면, 누가 질서의 문란이나 풍속의 타락을 이상하게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굳이 교육이나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금전이 없으면 교육의 혜택을 입을 수 없는 제도라면, 금전이 없으면 종교를 받을 수 없는 조직이라면, 결국 보급이나 감화의 성과를 볼 수 없는 것을 어찌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만민의 위장을 만족시키는 것이 곧 교육과 종교가 번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으로 생기는 폐해는 조화를 통해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차별로 인해 생기는 해독은 평등을 통해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개인주의가 혼란하게 만든 세계는 사회주의를 통해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셰페레는 사회주의는 명백히 위장의 문제라고 했다. 에드먼드 켈리는 사회주의는 근검절약위주의 생산과 공정한 분배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질적 기획이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 국민의 위장문제를 정당하고 또한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사회주의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胃腑の問題(社會主義の急要)〉,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9 월 18 일 ~20 일)

최근의노동문제 (사회주의의적용)

최근노동문제를논의하거나운동하는사람들사이에서사회주의를비난하고공격하는목소리가점차높아지고있다. 만약이런종류의속설이사회에서세력을얻기시작한다면, 비단사랑스러운우리노동자우리여러분의앞길을크게그르칠뿐만아니라, 나아가우리나라의각종사회문제, 특히노동문제의앞길을막고갈수록곤란과분규속으로빠뜨려오래도록해결을볼기회가없을것이다. 천하민생의불행가운데이보다더한것이있을까. 지금이속설들을완전히배척하고우리노동자여러분을위하여외길의불기둥 fire pillar 을밝히는것이우리들의시급한책임임을민다.

예전에활판공동지간화회회보에게재된구와타 (桑田) 모씨의 〈노동자와자본의관계〉라는제목의연설을읽었다. 이연설같은것이이속설을고무하는것가운데하나다. 그는“장래의노동문제해결은노동자와자본가가친밀하고온화한관계를유지하는데있으며, 세상에잔인하고각박한자본가가없지는않지만, 그것은그사람의죄이지자본가전체의죄는아니다. 그것으로자본가전체의박멸을주장하는것은부당하다. 단지부당할뿐만아니라도저히실행해서는안되는일이다”라고했다. 자본가와노동자사이가만약온화하고친밀할수있다면정말바람직하다. 사회주의자라고해도어찌감히이견이있겠는가. 하지만현재도아래있으면서과연언젠가그목적을달성할수있을까. 이론보다증거라고, 양자사이작년보다는올해에, 어제보다는오늘시시각각으로분열과충돌이늘어나고있지않은가. 분열과충돌을불러온이유가과연무엇인지를보라. 속설론자는이것을단지노동자의지식과패기부족에돌리고있다. 어찌면그럴것이다. 하지만노동자에게지식과패기가부족한것은과연무엇때문인가. 그이유는주로자본가의횡포와빈부격차에있지않은가. 또한자본가의횡포와빈부격차는과연무엇때문인가. 이것은주로현자유경쟁제도의폐단에있지않은가. 뿌리가어지러운데끝이다스려질리가없다. 자유경쟁의조직이폐단을심화하는동안은양자의친목과조화가어찌쉽겠는가. 사회주의자가자유경쟁제도를사회주의조직으로대치하려고하는이유가여기에있

법절은교제의요건”이다, “자신을사랑하는정을넓혀서타인에게미치게하고, 그고통을줄이고복리를증진하기위해힘쓰는것은박애의행위이자인간의미덕이다”라고말하는데그칠뿐이다. 하지만이것들은모두독립자존을위한것이며, 개인이사회전반의복리증진을위하여희생하는것이본분이고책무이며덕의임을설파하지않는다. 그리고우리들은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에서군사에복무하고국비를부담하여외환外患이있으면생명과재산을던져서적국과싸워야한다고는하면서, 오히려나아가크게전사회와인민을위하여목숨을버리고절개를지키는고상한도의를설파하지않은것을아쉬워한다.

이와같이수신요령은오로지독립과자존을중시하고평등과조화를경시하며, 오로지개인의도덕을볼뿐, 개인이사회에서지켜야할공도公道와공덕을거의보지않는다. 이것이우리가답답함을느낀가답이다. 이와같은방침을오늘날의수신요령으로삼는다면, 우리들은그결과를상상해볼때깊이우려하지않을수없다.

대개독립자존은개인자유주의의골수이자주축이다. 우리들은유럽각국이군주전제의질곡을탈피하여 19 세기문명의광휘를발휘할수있었던것이바로개인자유주의의선물이었음을안다. 그리고우리나라의오늘날의문명에, 또한후쿠자와옹이개인자유주의를전하여한시대의사상을개혁하는데크게공헌을한것을안다. 하지만세운世運은날로변하여달라진다. 방패와깃털을잡고춤을추어평성平城을열수는없다. 개인주의적문명은과연언제까지찬란한빛을유지할수있을까.

방패에는양면이있다. 물건에는양끝이있다. 이로움과해로움은반드시어디서나한쌍이다. 개인주의는한편으로반드시이기주의를면할수없다. 귀족전제, 봉건계급의폐단이극에이르러인민이거의노예의지경에떨어졌을때개인의자유와독립자존주의는세계의구세주였다. 후쿠자와옹은이때에이구세주를받들고서서전에없이훌륭하고뛰어난업적을세운덕분에이주의를유지하였고, 수신요령도수십년동안변함없이이것을골자로했다고하지만, 보라. 지금계급타파는질서가붕괴되어버렸고, 자유경쟁은악육강식으로변했으며, 개인자유주의는나아가이기주의의한면을드러내어, 폐단이사해에넘쳐흐른다. 그런데독립자존을, 아니독립자존만을사람들이수신의요령으로삼는것은위험하지않다고할수있겠는가.

사회를위하여개인을문어버리라는뜻이아니다. 하지만사회가개인을문을수없듯이, 문명사회에서는결코개인을우선시키고사회를뒤로할수는없다. 수신외길, 도덕의가르침은반드시한시대의사상에따라사회다수의복리를표준으로삼는공의와공덕이아니면안된다. 사회의공의와공덕이반드시독립자존과상반되는것은아니다. 후쿠자와옹의뜻은본래공의와공덕을무시하지않는다고해도, 아버지가원수를값으면그아들은반드시위협한다. 독립자존은일변하여이기주의가된다. 이기주의는대

쓸모없는 선비들이 결코 필적할 수 없는 점이었다. 참으로 최근 교육계의 귀중한 산물 product 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들은 한번 읽고 나서 대단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두 번 읽고 나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왜 그런가.

『수신요령』은 제 1 조에서 제 29 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독립자존주의로 일관한다. 옹은이주의를 해설하여 “심신의 독립을 온전히 하고 스스로 그 몸을 존중하여 사람다운 품위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을 독립자존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한 “독립자존의 사람은 자로자활(自勞自活)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체를 소중히 여겨 건강을 지켜야 한다”, “진취(進取) 확취(確取)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곧 독립자존주의의 정의를 대략 간추린 것이다. 이와 같다면 우리들은 독립자존에 대해 추호도 비판할 곳이 없으며, 개인의 인격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그렇다. 참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남녀가 오늘날의 사회에 대처”하는 것이 과연 독립자존을 내실로 하는 것으로 그 저본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모여서 국가를 이룬다. 그 사람이 바로 한 상국민의 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사회를 이루는 이상, 그 사람은 반드시 항상 스스로 사회구성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고, 제왕의 은택이 있는 지를 몰랐던 태국적 사람이라면 상관 없다. 문명의 진보로 분업의 세상이 되었다. 분업의 세상은 결국 사람을 불가자(不可者)로 만든다. 상업은 결코 상업만으로 먹을 수 없다. 농업은 결코 농업만으로 입을 수 없다. 사회 각자가 상부상조하는 것은, 마치 앞발이 긴 이리와 앞발이 짧은 이리가 상부상조하는 것과 같아, 잠시도 결코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 개인은 오로지 사회구성원일 때 비로소 독립자존을 내실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사회조직과 모순을 일으키고 충돌하고 이반하면 사람은 당장 불가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대처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독립자존을 온전히 하는 한편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대한 평등과 조화를 내실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사회에 복종하는 공덕이 없으면 안 되고 사회를 위하여 진력하는 공의(公義)가 없으면 안 된다. 더욱이 나아가서는 사회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복리를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사람은 사회에 속할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 본분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 문명 사회의 수신요령이라 하면 어찌 이 중대사를 등한시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후쿠자와 옹의 『수신요령』은 오로지 중심을 개인의 독립자존에 두고 사회에 대한 평등과 조화, 공의와 공덕을 훈계하는 데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냉담한 것 같다. 제 13 조에서 제 19 조까지는 어느 정도 사회에서 개인의 처신을 설파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단지 “건전한 사회의 기초는 한 사람 한 집안의 독립자존에 있다”, “사회공존의 길은 상호 침범하지 않고 자타의 독립자존을 손상시키지 않는 데 있다”, “복수는 야만이다”, “남과 교제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 “예의

다. 하지만 속설론자는 노동자에게 오로지 자본가와 친목하는 것이 최고의 책략이라 주장한다.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가.

사회주의자라 하더라도 자본가 전체를 죄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본가는 모조리 잔인하고 각박한 사람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자유경쟁이 결국 자본가를 저도 모르게 각박하고 잔인하게 만드는 것을 어찌겠는가. 무릇 자유경쟁은 비단 노동자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본가도 거의 견디지 못하게 한다. 아무리 속설론자가 조화를 주장하든 친목을 주장하든, 그들은 도저히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겨루지 않을 수 없다. 다투지 않을 수 없다. 한편은 항상 누르려고 한다. 한편은 항상 저항하려고 한다. 설령 잠시 양자가 조화를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이것은 결코 진정한 조화가 아니라, 운 좋게 도마침 항거의 힘이 압제의 힘에 맞먹을 수 있었기 때문일 뿐이다. 이것이 어찌 영속적이겠는가. 그러므로 잘 보라. 노동자가 조화를 만들면 자본가는 트러스트를 만든다. 노동자가 동맹파업을 하면 자본가는 블랙리스트를 만든다. 그리하여 이 싸움은 지금과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항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자본가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자도 마찬가지로 자본과 노동의 상부상조의 필요성을 안다. 하지만 오로지 자본가와 노동자의 친목으로 자본과 노동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망령된 오류의 극치다. 아니, 자본가와 노동자의 영원한 친목은 결코 바랄 수 없는 일이다. 저속설론자가 오늘날 이러한 친목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우리 노동자 여러분을 영구노예의 처지에 만족시키려는 것이다. 무턱대고 자본가, 고용주의 배를 살피우려는 것이다.

그렇다. 자유경쟁제도는 자본가, 노동자 모두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폐단이 서구 여러 나라처럼 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 자본가 친목론’을 한가로이 고취할 여지가 있어도 서구의 전철은 이미 눈앞에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방적업자가 일종의 트러스트 조성을 기도한 것 등은 이미 이러한 폐단에 말려들려고 하는 조짐이 아닌가. 자본가 절멸을 목적으로 한다고 사회주의자를 함부로 중상하지 말라. 자유경쟁제도를 사회주의적 제도로 고치는 것은 노동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본가도 살리기 위함임을 알라. 사회주의자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이다. 전심을 다하여 자본과 노동의 조화를 바란다. 하 집나 자본가와 노동자의 친목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안다. 저속설론자라 해도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 실제로 구와 타모씨는 연설에서 또한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오로지 이익배당이 많기를 바란다. 관리자도 되도록 이익배당을 많게 해서 주주의 환심을 사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들에게 직공을 보호하고 너그럽게 대할 것을 바라는 것은 도저히 실행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명백히 친목을 바라기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속설론자의 자가당착적 논리가 아닌가. 그렇다. 자본가 전체는 잔인하고 각박하지 않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기꺼이 이익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눈으로 보면, 아니 사회민생의 눈으로 보더라도, 자본은 정말로 필요하지만 자본가는 결코 필요하

지않다. 이렇게말한다고해서사회주의자가일시에급격한변혁으로천하의자본가를모조리절멸해야한다는것은결코아니다. 이것을바로지금곧바로실행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도아니다. 사회주의자를이와같은폭도로여겨배척하고비난하는데열중하는것은중상도너무지나친중상이다. 하물며오늘날자본가가노동자를보호하고가까이할희망이도저지없음을알면서도오로지노동자들을향해온화와친밀을설파하는것은모순당착의끝이아니겠는가.

속설론자여, 자본과자본가는 다르다는것을 명심하라. 사회주의자는감히자본가의절멸을바라지 않는다고해도, 자본과노동의진정한조화를위해서는자본을사회의공유로할것을주장하지않을수없다. 그결과로서개인인자본가의부정한폭리를줄이는것이어찌불가능하겠는가. 예전에사민평등을위하여봉건군주의영토를봉환시켰던것을보라. 이것이부당한처사가아니라고한다면, 어찌유독자본가의폭리를줄이는것을부당하다고하겠는가. 이렇게되면자본가는노동자를약탈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자기보다큰자본가에계약탈당하지않을것이다. 노동자를살리는 동시에자본가를살리는것이다. 사회주의는박애다. 일시동인이다. 속설론자의희망처럼하나를괴롭혀서다른하나를이롭게하는것이아니다.

속설론자라해도지금의경제조직의폐단을인정하지않는것은아니다. 아니, 그것을인정하기때문에예의‘자본가노동자친목론’을떠들어대기도하는것이다. 하지만미덥지않은현재조직을개조하여자본과노동의완전한조화를목적으로하는사회주의를비난하고배척하기에진력하는것은스스로를너무심하게기만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들은“사회주의는실행할수없는탁상공론이며동맹파업을목적으로삼는것”이라고한다.

사회주의는과연실행할수없는것인가. 우편, 전신, 철도, 삼림의국유는모두사회주의의실행이아닌가. 전신, 가스, 시가철도같은것이지영市營인것이사유인것에비해훨씬편리하고저렴하다는것은서구의여러도시가이미실험하지않았는가. 글래스고같은곳은시가나서서값싼임대주택을건축하여노동자에게빌려주지않았는가. 만약사회주의자가일거에천하의자본을모조리국가로몰수하고모든공업을모조리중앙정부에위임하라고주장한다면, 이것은진정실행하기어려운탁상공론일것이다. 하지만걱정을멈추라. 사회주의는결코이와같이과격하고난폭하지않다. 사회주의자는오로지중앙정부의만능을믿는사람이아니다. 국가의무한한권력을송배하는사람이아니다.

영국페이비언협회 Fabian Society 의노동자정치강령중에“우리는사회市會나군회郡會가공업생산의각부에관계할세력을갖기를바란다”고하는구절이있다. 또한“우리의금전을둘곳을중앙정부의금고이외에찾을수없는한은, 토지를국유로한들무슨이익이있겠는가. 중앙정부는다만재산을화약등의외교적손상에소비할줄만알뿐이다. 의회는지방의공업생산의곤란함이나실업노동자를구제하지않는다”고한다. 그렇

(西郷隆盛, 1828~1877) 나오후쿠자와옹의소견에따르지않는자가많았다. 나이와사키는모두비범한거인이었다. 평범한거인에이르면과연누가있었는가. 우리들은겨우고후쿠자와유키치(福沢諭吉, 1835~1901) 옹하 나가평범한거인을방불케함을보았을뿐이다.

직언하면우리들은평소오후쿠자와옹의소견에따르지않는자가많았다. 하지만옹이일찍이서구문명을강의하고많은영재를교육하여일대사상을혁신하고현재의일본문명을이룩한공적은천고에닿지않을것이다. 공자가일컬어관중(管仲)이없었다면우리는옷깃을왼쪽으로여미는오랑캐가되었을것이라고했다. 생각건대옹이없었다면우리국운의진보가어찌이와같이될수있었겠는가. 우리국민이옹에게진빛이많다.

하지만이것은여전히지엽적인것이다. 우리들이특히옹에게경도되는까닭은학문과문장에있는것이아니라그인물에있다. 평범한거인인데있다. 옹은평범함에안주하여비범함을바라지않았다. 동도(東都, 도쿄) 예전쟁의먼지가충만할당시에의연히글을강론할수있었던것이이것이다. 40 년이라는오랜세월을가르치기를쉬지않는성자를닮을수있었던것이이것이다. 오래도록무작無爵의일개평민으로서부귀도음탕하게하지못하는저변의도덕이있고위력도굴복시키지못하는저변의지조를지키며죽음에이르기까지변함이없었던것이이것이다. 일대사표로서우리사상계에대혁신의위공을세운것도이것이다. 그렇다. 옹이희대의거인인까닭은다만철두철미하게평범한천직을행하여굴하지않은데있다. 평범한본분을다하여꺾이지않은데있다. 비범함을바라지않은데있다. 그리하여지금인물이사라지니우리들은천명의비범한거인보다는일개평범한거인이있기를바란다. 그런데지금인물이사라지니애석하지않겠는가.

(〈平凡の巨人〉,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2 월 6 일)

『수신요령』 을 읽다

후쿠자와옹이편찬한『수신요령』은“오늘날의남녀가오늘날의사회에대처하는길”을설파했는데, 독자적인비평안을갖추고있어평범하고

와타나베구니타케도이벽위에큰붓을휘두르려하는사람이었다. 처음에는까마귀나소처럼덜칠된추함을견디지못하고떠나려고하다가겨우여백이약간있는것을발견하고다시그아래에서쉬기시작했다. 아아, 성덕, 흰벽의성덕, 우리들은오히려연민의정을느낄망정부러워할만한것을찾을수없다.

(〈伊藤侯の盛徳〉,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4 월 25 일)

평범한거인

거인이두명있다. 한명은기이한재능과탁월한수완을휘둘러비범한활극을연출하여일시에천하의이목을놀라게하여강호의갈채를받았다. 다른한명은행실이굳이바른길을벗어나지않고추후도기이함이없으면서도선을썻고덕을높이세워마침내한시대가추앙하는사람이되었다. 우리들은전자를비범한거인이라부르고후자를평범한거인이라부르고자한다.

비범한거인은대개군인, 정치가가 많다. 평범한거인은드물게학자, 교육자, 종교인중에서나온다. 유사 이래비범한거인은많으나국가와인민에게이로운바가적고, 평범한거인은적으나사회와문명에이로운바가 많다. 비범한거인은예를들면기암괴석이나거센폭포가사람을놀라게하는것과같다. 그런데놀라게한다고해도그효과는문사나시인이쓸데없이잔재주를겨루는재료에지나지않을뿐이다. 평범한거인은예를들면한덩어리의토양이쌓여우뚝 솟은큰산이되고, 한갈래가는물줄기가모여넓디넓은강과바다를이루는것과같다. 그것이평범하다고해도만민은그것덕분에살고의식주를얻는것이아닌가.

그렇다. 두명의거인이있는데, 하나는폭력이고하나는의리다. 하나는재지才智고하나는덕행이다. 하나는인작人爵이고하나는천작天爵이다. 하나는물질이고다른하나는정신이다. 고로하나는눈앞에있고다른하나는썹지않는다. 우리들은비범한거인을천명내는것보다는오히려평범한거인이한명있기를바란다. 그리하여보라. 유신 이래로많은비범한거인을냈다. 기도다카요시 (木戸孝允, 1833~1877) 나사이고다카모리

다. 작게는일개정촌町村의사업에서크게는일개현縣이나도부都府, 한나라의사업까지각각의편의에따라점차자본을사회인민모두의손에집중해생산의이익을공평하게분배한다. 이것이사회주의의주장이다. 도쿄마차철도가영원히사유로남아야할이유는없다. 시가철도는결코영원히증권중개업자의먹이가되어야할이유가없다. 이것을공유로하여만민이공평히이익의배당을받는것이어찌실행하기어려운일이겠는가. 다만땅과때와사정에따라다소시일의길고짧음과성과의완성도를달리할뿐이다.

하물며사회주의자가동맹파업을목적으로삼는다고주장하는것은무슨견강부회인가. 속설론자가송배하는자본가가운데로잔인하고각박한사람이있듯이, 사회주의자가운데또는엄청난억압과박해탓으로난폭하고과격한행동을불사하는사람이있을것이다. 그렇지만그때문에사회주의를배격해야한다고한다면, 유신이전의근왕론자는모조리난적이아닌가. 오히려웃음을참을수없다. 아마도그렇다. 세상에만약실행하기힘든탁상공론이있다면, 그것은사회주의자의논의가아니라, 오히려속설론자가주장하는, 지금의경제조직의범위내에서노동자의지위를개선하려고하는논의임을알라.

요컨대우리나라노동문제의귀착은비단시간단축을탄원하는것만도아니고, 임금증가를탄원하는것만도아니다. 오히려노동자가정당한지위와권력을보유하고생산에대한공평한분배를얻는것을궁극적목표로삼지않으면안된다. 그런데이것은지금의경제조직에서는도저히바랄수없는일이며, 반드시사회주의적이상의실행을기다리지않으면안된다. 노동자로하여금자본을공유케하지않으면안된다. 적어도우선공공사업에참여할권리를갖게하는방법을찾지않으면안된다. 보통선거시행과같은것은특히시급한사안에속한다.

아아, 우리나라노동문제를해결하는데에는오로지사회주의가있을뿐이다. 노동자여러분을살리는것은오로지사회주의가있을뿐이다. 속설에속지말라.

(〈近代の労働問題 (社會主義の適用)〉, 「萬朝報」 1899 년 (메이지 32 년) 10 월 3 일 ~4 일)

제국주의의쇠운

사회주의를 혐오하는 자여. 눈을 크게 뜨고 세계의 대세를 보라. 사회주의는 명백히 20 세기의 위대한 이념이자 위대한 이상이 아닌가. 무릇 지금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라는 것은 우리들의 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해악은 이제 거의 절정에 달했다. 유럽 각국이 민력과 국력을 다하여 새 영토 경영과 군비 확장에 급급한 결과로는 곧 인민 다수의 곤란과 기아, 죄악뿐이다. 우리는 이미 독일과 러시아 두 나라의 실상을 통해 분명한 예증을 볼 수 있었다.

비전쟁론자로 유명한 장드블록은 일전의 『평론의 평론』 지상에서 <독일의 무장을 통한 평화> 라는 제목으로 그 위험성을 논했는데, 독일은 결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들은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한 뒤로 거액의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해 왔다. 만약 그들이 4 백만 명의 병사를 징집한다면 당장 내지에서 9 백만 톤의 식량 생산력을 잃을 것이다. 게다가 공업은 전쟁 중에는 원료 공급길이 완전히 끊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독일 무역은 2 천만 명을 먹이고 있다. 상공업이 한번 위축되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고 했다. 블록은 또한 “독일의 상업적 위치는 점차 비운으로 치닫는다. 그들은 염가에 염가를 거듭하여 상품을 팔고 있다. 또한 빈번히 외국 시장을 찾고 있지만 침체에서도 저하되어 날가망이 없다. 지금 구제방책은 오로지 군비 감축 하나 뿐이다. 이것이야 아니면 독일은 과거와 같은 전성기는 다시 누리지 못할 것이다. 보라, 시장이 정말로 부담을 견딜 수 있겠는가. 어찌 의화단 운동 때 출병 비용을 대기 위해 미국에서 외채를 모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블록은 나아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이래로 독일의 전시 저항력은 70 퍼센트가 줄었다고 단언하고 독일 국민의 번영은 한갓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갈파하며 아래의 통계를 제시했다.

인구의 45 퍼센트 1 년 수입 197 마르크 이하

인구의 40 퍼센트 1 년 수입 276 마르크 이하

인구의 5 퍼센트 1 년 수입 896 마르크 이하

인구의 1 퍼센트 1 년 수입 2,781 마르크 이하

블록의 말이 과연 정곡을 찔렀다고 한다면 빈약함이 오히려 놀랄 만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블록이 일컫는 유일한 구제책인 군비 감축을 하지 않은 채 상공업이 이익이 완전히 군비와 식민지 확장으로 흡수되는 동안 다수 인민은 갈수록 빈곤으로 떨어지고 생존을 위한 싸움은 갈수록 격심해질 것이다. 그렇다. 실제로 작년 통계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1 년간 자살자가 거의 8 천명에 이르는데, 전반적인 생활의 타락, 악덕과 비관이 원인이라고 한다. 무릇 그들이 중국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사모아에서 많은 이익과 영광을 얻은 결과는, 이와 같이 사회 조직을 거의 뿌

이토 후작의 성덕

일찍이 책을 읽다가 프랑스의 위인장자크 루소가 탄식한 말을 본 적이 있다. 큰 인물은 비유컨대 길거리에서 있는 흰 벽과 같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위에 낙서를 하여 더럽힌다고 했다. 우리들은 오늘날의 이토 히로부미 후작에 대해 이와 같은 느낌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

우리들은 본래 이토 후작을 큰 인물로 보지는 않는다. 그가 겁약하고 야심을 잘하며, 저열하고 파렴치한 소인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어떤 부분에서 4 천만 명 중 어느 누구도 필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성덕(盛德)을 지녔다. 우리들은 일단 성덕이라고 한다. 성덕이라는 말이 외에 적당한 명사를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의 성덕이란 다름 아니다. 천황으로부터 공전의 총애를 받는 것이 그것이다.

이 성덕은 예로부터 군자가 가지는 것인지 소인이 가지는 것인지를 묻지 말아야 한다. 이토 후작이 이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지 없는 지를 묻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이 성덕을 가진다는 점, 성덕이 천하에 가장 뛰어나다는 점이 바로 그를 길거리의 흰 벽이 되게 했다. 지나가는 자는 모두 그 위에 낙서를 하고 그를 모욕하지 않는 자가 없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것을 불식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도피할 수조차 없다. 가엾지 않은가.

자유당이 그를 추대한 까닭은 오로지 그가 흰 벽의 성덕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치적 말썽꾼들은 모두 이 흰 벽을 이용하여 글자로 얼굴을 그리는 식의 필력을 드러내려 몰려왔다. 구관리인 막부 관료나 신진 학자들이 그를 추대하는 까닭은 역시 흰 벽을 이용하여 사랑의 낙서나 여러 가지 낙서를 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다. 그 밖의 허다한 정치적, 실업적 여행객은 이 흰 벽으로 달려가 이름을 새기고 생각하는 바에 제목을 달고 지나가지 않는 자가 없다. 이리하여 처음에는 휘황하게 빛났던 것도 종횡으로 칠해지고 상하로 그려져 단 지검게 변해, 어느 것이 글자라고 그린 얼굴이고 어느 것이 사랑의 낙서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떨어져 내리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렇다. 그는 지금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 그에게 성덕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행인의 주목을 끌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불식할 수 없는 모욕, 도피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단지 내지의 여행객에게 덜 밟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외국의 정치적 여행객의 얼굴 낙서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운을 만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갈 수 없으며 물러서려고 해도 물러설 수 없으니, 뉘우쳐 탄탄하고 회한하는 상태는 헤아리기조차 힘들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며, 그렇지 않은 인사를 가리켜 당장 미개하고 야만적이라며 비웃는 무리가 최근에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세상의 경박한 무리들이 엄청나게 이러한 유행을 따르는 것 같다. 아아, 그들이 어찌 진정한 문명인인가. 그들이 어찌 진정한 문명인인가.

19세기 서양 문명의 정수는 개인들이 자유평등의 이상을 품고 자주독립의 기상이 풍부했던 데 있다. 프랑스 혁명이 유럽 천지를 일신한 것은 오로지 자유평등의 이상을 향하여 매진한 덕분이었다. 대륙 각국이 헌법을 정하고 의회를 설치하여 수많은 국민적 통일과 흥륭을 이룬 것도 자유평등의 이상이 널리 퍼진 덕분이었다. 많은 과학적 발명이 산업 혁명을 이끈 것도 오로지 자주독립의 기상이 축적된 덕분이었다. 영국의 공업과 통상이 세계 시장을 제패한 것도 이 기상이 펼쳐 일어난 덕분이었다. 프랑스의 문예가 크게 번성하고 독일의 학술이 다양하게 구비된 것도 모두 이와 같은 이상과 기상이 흥륭한 결과가 아닌 것이 없다. 자유주의도 여기에서 나왔다. 그들의 진보가 항상 세계에 앞서고 그들의 부강이 항상 세계에서 뛰어난 까닭은 모두 여기에서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서양 문명의 진의를 얻어 성과를 거두고 혜택을 입고자 한다면, 오로지 이 이상을 함양해야 한다. 이 기상을 펼쳐 일으켜야 한다. 어찌 하이칼라에 있겠는가. 화장품에 있겠는가. 글자를 옆으로 쓰는데 있겠는가.

그런데 문명인을 자처하는 저 무리들을 보라. 자유평등의 이상에다가 가고자 하는 자는 추호도 없고, 이 기상을 지닌 자도 하나도 없다.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귀족이다. 번벌이다. 대훈위다. 후작이다. 그들이 희망하는 것은 관직이다. 지위와 녹봉이다. 국장이다. 공사公使다. 그리하여 이익을 쫓기 위해서 아침을 하지 않는 곳이 없고,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지 않는 곳이 없다. 대개 실제 행실은 도박에 빠지고 주색에 빠지고 부채가 쌓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문명의 신사, 문명의 정치가라 자처한다. 이보다 더 심하게 문명을 모욕하는 것이 있겠는가.

그렇다. 그들의 웃은 문명이다. 글자나 담화는 문명이다. 하지만 눈속과 뇌리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귀족, 전제, 관직, 금전, 주색, 맹종,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문명의 껍질을 뒤집어 쓴 야만인인 아니겠는가. 그들이 평소 애초 소하는 야만인은 사상이나 내용에서는 아직 그들만 큼 야만적이지 않다. 저열하지 않다. 의지가 박약하여 실천을 못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그들의 기양양하게 세상에 자랑하는 요즘과 같은 시절은 결코 국가의 경사가 아님을 믿는다.

(〈文明を汚辱する者〉, 「萬朝報」 1900년 (메이지 33년) 4월 25일)

리에서부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인민은 결코 위험한 상태를 오래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의 제국주의는 평화에 의해서든 혁명에 의해서든 어느 쪽이든 머지않아 바로 묘지에 묻히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는다.

러시아는 위험성이 이보다 더욱 더 심하다. 러시아에 산이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최근에도 착한 「격주 평론」에 실린 어떤 글은 파울스의 『기아의 러시아』라는 책을 인용하여 일권기를, 1887년 1월부터 1899년 1월에 이르는 12년간 러시아 공채는 43억 루블에서 61억 루블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17억의 공채 수입 중 철도 등 생산 사업에 투자한 것은 12억이고 나머지는 모조리 세수 부족을 보충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무턱대고 영토를 팽창하고 군비를 확충한 결과는 한편에서 민간의 극심한 파멸을 낳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철도 등의 사업은 아직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외채 원리금 상환과 세수 보충을 위해서는 또다시 외자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외자 투입 방법이 없다면 내국의 모든 정화正貨를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재정은 이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각지의 상공업이 위축됨에 따라 하층 인민의 불만은 갈수록 증가하여 정말로 일대 혁명의 조짐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전히 군비주의, 제국 팽창주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뒤를 잇는 것은 파산이나 혁명이냐 양자택일밖에 없다. 이것이 러시아 위정자가 현재 가장 고심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러시아도 머지않아 제국주의를 버리고 나아가 일종의 새 이념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과 마주칠 것임을 우리들은 믿는다. 비단 독일과 러시아 두 나라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다. 제국주의는 지금 사회 다수의 곤란과 기아, 죄악을 증가시키고 사회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군인, 자본가, 정치가는 자기의 헛된 명성과 이익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 인민은 이상 상태를 견딜 수 없으며, 나아가 사회 구제의 위대한 이념과 위대한 이상을 외치기에 이를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주의가 쓰러지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이념과 위대한 이상은 바로 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라. 제국주의가 다수 인민을 곤란과 기아, 죄악에 빠뜨리는 까닭은 빈부 격차를 심화하고 생존을 위한 싸움을 혹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목적은 우선 빈부 격차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빈부 격차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사회주의자가 주장하듯이,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로 하고 만인을 균등하게 노동자가 되게 하여, 생산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외에 결코 방법이 없다. 에밀 졸라는 탄식하며 “아아, 이것은 세상을 구할 경이로운 교의다 (wonderful doctrine)”라고 말했다. 그렇다. 사회주의는 세상을 구할 위대한 이념이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 이것은 과격한 것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다. 지금 서구의 어질고 의로운 지사는 우선 이에 따라 사회의 개혁 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착실

히보무를내던어, 그세력은제국주의의해독이늘어남과동시에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사회주의를협오하는우매한무리는마땅히눈을크게뜨고 보라.

독일에서는비스마르크가잔혹한진압을시도했는데도점차당원이증가하여지금제국의회에 58 명의의원이있지않은가. 프랑스는사회당지도자밀랑이내각에들어갔을뿐만아니라, 의회에 47 명의의원이있지않은가. 영국의사회당은 13 명의의원이있으며벨기에의사회당은 35 명의의원이있다. 그리하여유럽전체의사회당선거자를계산하면장년층만으로도무려수백만명에이르며, 선거마다경이로운비율로증가하고있지않은가. 더욱이이들각국지방의회에서사회당의원에게이르면, 간단히그지방의다수를차지하는곳이적지않다.

무릇최근그들의국제운동은재작년 (1899 년) 3 월런던대회, 같은해 5 월브뤼셀대회부터작년 (1900 년) 파리박람회당시의대회에이르러급전직하의기세로세력을드러내기시작했다. 그들은파리대회의결과로만국동맹본부를벨기에에두고세계각국사회주의의단결을걸고히하여민활하게일치운동을벌이고자했다. 그리하여사회주의가실제정치에응용되는곳은, 벨기에나뉴질랜드나런던, 글래스고등의시정市政처럼모두성과를올리고있다. 대개이와같다. 세계의대세가향하는곳은, 비스마르크의무쇠팔이환생한다하더라도어찌지못하기때문이다. 우리일본이어찌홀로사회주의운동의조류를탈출할수있겠는가. 그렇다. 공업이있고군비가있고빈부격차가있고생존을위한고투가있고다수의곤란과기아, 죄악이있는곳에는사회주의가반드시구세주로도래할것이다. 아니, 도래하지않을수없다. 우리들이최근에사회주의를절규하는것은그때문이다.

우연히미국인의소설을펼치자다음과같은구절이눈에들어왔다.

그때모아나의뺨은뚜렷이홍조를띠고그눈은아름답게빛났다.

그녀는쓸쓸히미소지으며, 부디내가논쟁적인것을용서해줘, 로드군. 나는많이살았어. 나는가난한자가억압받는것을봤어. 그리고부자와그들의고용주가무관심한것을봤어. 내가만약남자였다면나는반드시사회주의자가되었을거야.

아아, 이것을소설가가꾸며낸말이라고하지말라. 적어도어느정도로이론적두뇌를가지고인자하고박애하는마음이풍부하며매우공평한눈빛으로만국사회의상태를관찰할수있는사람은평범한부인이라해도사회주의자임을결코금할수없는것이오늘날의실상이다. 하물며수염난당당한대장부로서천하에뜻을품는자라면오죽하겠는가. 왜냐하면오늘날의사회는사회주의가아니면도저히길이없기때문이다. 구제할방법이없기때문이다. 세상의우매한무리가여전히코를골고잠에취해있다면사회주의의홍수는하루아침에당신의침대를표류하게할것이다.

들과고별하고나아가려고하는것이다. 웃음을참는다. 지금도여전히이토히로부미를받들고이노우에가오루를밀고오쿠마시게노부를끌어안고천하를구하려는자여.

유신의혁명명 <토코톤야레> 의가락속에서성취되었다. 입현대의제도는당시에자유당지사가부른“첫해, 사람위에서사람없네”라는창가속에설립되었다. 유신의원훈이나정당지도자들은당시의중대한혁명사업을자신들의손으로매우쉽게이룩했는데, 오늘날구구한작은문제들을결국해결하지못하는것을보면서어찌스스로기이하게여기지않는가. 다름아니다. 당시사업은그들이청년활동가의의기를가지고단행했기때문이다. 오늘날의문제는오로지젊은이의수완에의지하기때문이다. 오늘날풍속개량회에서안좌法을강의하고조금의반향조차언지못하는이타가키다이스케백작이당시자유민권의목소리로 60 여주주의산하를뒤흔든것을생각하면, 천하에가장가연은자가어찌미인과명장뿐이겠는가.

번벌도늙었다. 의회도늙었다. 정당도늙었다. 대학도늙었다. 국회의원이나학자나상인가운데나이 40 이안된자는있다. 하지만그들의마음은완전히늙었다. 국가와사회의경영은이미그들의손을떠나우리청년의수중에떨어지려한다. 청년이득의양양한시대가열리려하는것이다.

우리들은천하에유망한청년지사를대신하여오늘날의노쇠한무리들한테대단히감사한다. 우리들은당신들의 20 여년에걸친노고와진력을진심으로인정한다. 하지만오늘이후의풍운은우리청년들의손으로일으켜야한다. 오늘날의침체, 위축, 마비, 혼수상태를보면그것을어찌할수없는데도, 당신들은어찌서노검객의말처럼나는늙었다고자백하지않는가. 헛되이일시적인피하주사로노쇠함을덮으려해도오히려피로를더할뿐이다.

(<老人の手> ,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4 월 25 일)

문명을모욕하는자

몸에서양신식옷을걸치고손에는반드시양서를들고, 이야기는반드시서양어를섞으면서의기양양해서서양문명의진의를얻었다고떠들어

곧타락이아니면붕괴가있을뿐이다. 만약미국건설초기에워싱턴이오로지권리와이익을주장하며제 3 대대통령이되는것을받아들였다면, 우리들은오늘날의미국이반드시가공할만한세습전제국이나그렇지않으면혁명을혁명으로잇는프랑스처럼되었으리라고확신한다.

알아야한다, 오늘날일본의부패와타락은우리국민사이의무개념이완전히결핍된데서나왔음을. 먼저의무를다하지않고오로지권리와이익을주장하는폐단에서나왔음을. 고로오늘날의일본을구하고자하는자는먼저우리사회와인민에게의무를중시하고의무를다하는마음을환기시키고양성하는것보다급한것이없다. 만인이각자의무를다하여태만하지않는다면, 진정한권리는저절로여러분에게올것이다. 현대의청년들이오로지이것을명심한다면앞당길수있지않겠는가.

(〈義務の念〉,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7 월 11 일)

노인의손

노검객모씨가일찍이우리들에게말하기를“젊은시절검을내리칠때, 마음이움직이는찰나에칼이곧바로함께나갔지. 그사이에털끝하나들어갈틈이없었는데, 지금내눈은여전히보이지만손이이를따르지못하니, 아아, 내가늙었구나”하고한탄했다. 현재국가의경영을맡은자의태도를보라. 이것과비슷하지않는가. 천하가온통위축되고침체되고마비되고혼수상태가극에달해거의죽은것같은데도누구하나밝은뜻을품는자가없는것은왜일까. 그들이진정으로늙었기때문이다. 비단나이뿐만이아니라마음이완전히다하고몸이완전히쇠했기때문이다.

마음이움직여도볼수없고, 보아도그것을통제할수없다. 마치노검객의심기가잘못작용하여수족을자유자재로움직이지못하는것과같다. 이른바정국전개에서그들이얼마나애썼는가를보라. 관청의규율확립을위하여그들이얼마나애썼는가를보라. 교육부진에대해그들이얼마나애썼는가를보라. 재정불운에대해그들이얼마나애썼는가를보라. 그런데도결국어느방면에서도조금도효과를거두지못하고위축과침체와마비와혼수상태가여전하지않는가. 그리하여국가와사회는빨리그들노쇠한자

(〈社會主義の大勢〉, 「日本人」 1900 년 (메이지 33 년) 8 월 20 일)

암살론

암살을죄악이라하는것은, 마치분뇨를더럽고냄새난다고하는것과마찬가지로, 결코아무도이의가없는사항이므로논할필요조차없다. 분뇨는원래인체조직상자연스러운결과로나오는것이니아무리냄새나고더러운것이싫어서막으려해도어쩔수없는데, 사회가암살자를낳는것도아마도이와마찬가지흐름이아닐까.

전쟁은나쁜것이다. 우리는하루속히전쟁이없는시대가오기를바란다. 결코전쟁을장려해서는안된다. 하지만지금의사회조직에서는때로전쟁이라는나쁜일을저지르지않고서는, 자국의억울함을달래고굴욕을피하며권리와이익을지킬수없는경우가있다. 그런데도덕이이경우에도여전히전쟁을나쁜것이라고배척할정도로나아가지않거나, 국제공법이전쟁을하지않고도각국의행복과권리를보전할수있을만한능력을갖추지않는한, 전쟁은결국피할수없는추세다. 전쟁이결국피할수없는추세라면, 비단그죄를군인한테돌려서그들을흉악한무리라부르고나악한겁쟁이라고손가락질하며입에침이마르도록외치고붓이닿도록써대도, 아무런효과가없음은명백하다. 지금의암살자가나오는것을방지하려는것도마찬가지로이와비슷한점이있지않겠는가.

동맹파업은좋은것이다. 이것을장려하지않아야함은물론이다. 하지만때로노동자가이불량수단으로궤박과궁핍을피할수있는경우가있다. 오늘날의경제조직이노동의가치를수요공급의법칙에따라매기는한, 어쩌면일반노동자가굶어죽더라도절대로불량한것을하지않겠다고천명한백이와숙제같은인물이되지않는한은, 동맹파업은결국피할수없는추세다. 동맹파업이결국피할수없는추세라고한다면, 오로지그죄를노동자에게돌려서그들을흉악한무리라부르고나악한겁쟁이라고칭하며입에침이마르도록외치고붓이닿도록써대도아무런효과가없음은명백하다. 지금의암살자가나오는것을방지하려는것도마찬가지로이와비슷한점이있지않겠는가.

국제공법이국제분쟁을판결할능력이없는것처럼, 경제조직이자본가와노동자를조화시킬수없는것처럼, 개인이나당파의행위에대하여사

회의법률도양심도완전히시비와이해를판단하고또한그것을제재할힘을상실하는경우가있다. 또는그힘을상실한것과비슷한경우가있다. 그래서사회의판단과제재에절망한사람은은자가되거나광인이되거나자살을하거나바로암살자가된다. 암살은정말로죄악이다. 하지만암살자를절망에빠뜨린사회는한층더죄악이아니겠는가.

그렇다. 그들은개인이나당파의행위에대한사회의판단과제재가무력한데절망하여, 스스로사회를대신해서판단과제재를하려는사람들이다. 고로가슴속에한점사적인것을품지 않으며, 사회다수의의견에근거하여자기자신의나아갈방향을정하는경향이있음은분명한사실이다. 물론모든암살자가이와같다는것은아니다. 그중에는헛된명예를위하여암살하는자도있고, 미쳐서암살하는자도있으며, 사적원한때문에암살하는자도있다. 마치의롭지못한명성을위해전쟁하고, 불법적사욕을위해동맹과업을하는것과같다. 하지만진정으로당시사회에절망하여암살을사회의유일한활로로삼은사람은명백히많은민생의아군이아니고무엇이겠는가. 송구스럽지만, 나카노오에황자는소가노이루카(蘇我入鹿, ?~645)의암살자였다. 야마토다케루노미코토는가와카미노다케루(川上梟帥)의암살자였다. 그들이어찌암살이상도를벗어났음을알지못했겠는가. 다만당시사회의법률도양심도이에대해아무런제재도할수없는것을보고서스스로사회를대신하고자했던것이다. 그리하여이루카를죽이고다케루를치는것을사회다수의의견이라고확실했던것이다. 과연천하는이암살에손뼉을치며통쾌하여졌다. 그렇다. 당시의법률, 도덕, 사회조직에서이거사가있었던것은어쩔수없는추세였고, 인력으로도저히저지할수없는것으로서오히려하늘의뜻이라고할수도있었다.

그렇다면메이지明治인오늘날의암살은어떠한가. 암살은도저히근절할길이없는가. 우리들은따로주장이있다. 메이지인오늘날도마찬가지로사회가개인이나당파의행위에대해정당한판단과제재의힘을잃어버린시대다.

호시도루암살사건을보라. 그를가령올바른군자君子였다고해보자. 이올바른군자를보고공공연히도적이라매도하고악한이라고부르는언론에대해서는, 사회가이것을옳지않다고해서충분한제재를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아닌가. 하지만사회는이것을알면서도제재할수없었던것이다. 이와반대로, 호시를가령나쁜도적이라고해보자. 사회는재빨리선고를내려서결코그가공인으로나서지못하게해야하지않는가. 그런데도사회는이것을알면서도제재할수없었던것이다. 세상사람들이이미사회의판단과제재를기대할수없어서사회에절망한끝에, 오로지자기가보았을때사회다수의복리라고믿는것을단행할수밖에없다고생각하기시작하면, 곧암살자가나오는것이아니겠는가. 암살자도본래암살이나쁜행위를알았다. 하지만그는무능력한사회에의해다수의복리가훼손당하는

(〈目的と手段〉,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6 월 12 일)

의무감

의무감은말은대단히오래되었지만, 뜻은매우새로운것임을알아야한다. 왜냐하면의무감은우리국민에게결핍된것이기때문이다. 아니, 전혀없다고해도될정도이기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지금우리나라의관민官民과상하上下만반의사회를통틀어정당하게의무를다하는자가한사람이라도있는가. 다하고자마음먹고있는자가있는가. 그들은“이러이러한것은내권리다, 여차여차한것은내이익이다”라고말한다. 권리와이익이존재하는곳에는멧돼지처럼돌진하고독수리처럼날아오르려고해도, 일단의무라는말을들으면교묘하게비껴가고책임을전가하려고하지않는자가없다. 관리는인민을꾸짖을권리를크게휘두르고, 인민을보호하고편익을제공해야한다는의무감은전혀가진적이없다. 상인은오로지상품의대금을청구할권리만휘두르고, 상품이반드시양호하고견고해야한다는의무감은전혀가진적이없다. 주주는오로지이익배당을받을권리를휘두를뿐이고, 사업의번영에힘써야한다는의무감은전혀가진적이없다. 의원은오로지예산과법률협찬권을휘두를뿐이고, 그시행이국가와인민의이익과행복이되어야한다는의무감은전혀가진적이없다. 선거민또한오로지선거권을휘둘러표를팔뿐이고, 헌정에완전히충실할의무감은전혀가진적이없다.

진정한권리는진정한의무를수반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은말할필요도없다. 국가에대한의무를다하지않는자는국민의자격이없다. 사회에대한의무를다하지않는자는사회의일원이될자격이없다. 이미자격이없는자에게권리가있을리없다. 그들이먼저의무를다하지않고오로지권리를주장하고휘두르려하는것은방자함이다. 개인으로보면개인의타락이다. 사회로보면사회의파멸이다. 상하가서로이익을취한다면나라가어려울것이라는맹자의가르침은바로이러한뜻이다.

프랑스대혁명이후에혁명을혁명으로잇고전복을전복으로이으면서정치체제가몇차례바뀌었는지모르지만, 결국견고한건설을이룩할수없었던것은지혜가없고지식이없고용기가없었기때문이다. 다만프랑스사회가오로지권리를보고의무를보지못했기때문이니, 국가와사회는

고그명령에따라진퇴하고움직이고멈추는것은확실히금수나어패류와
의차이를규정하는요건임에틀림없다. 그러므로개인은개인의이상과목
적이없어서는안되며, 사회는사회의이상과목적이없어서는안된다. 동
서고금을통틀어개인과사회가좀더많이진보하고번영하는것은, 그이상
과목적에대해좀더많이열성적이고충실한데에서기인할뿐이다.

세상에는부정한목적에대한부정한수단이있다. 이것이사회에서용
인될수없음은물론이다. 만약원대하고숭고하며또는필요불가결한목적
을위해부정하고추악한수단을강구했다면, 그것때문에원대하고숭고한
목적과이상을벌하는것은가혹하다. 상투를틀고 40 년을사방으로돌아
다니면서뜻을언지못하다가마침내상도를벗어난행동하고만중국의
호걸처럼, 그수단은뭇다해도뜻은오히려가련한것이다. 먹고살기위해
도둑질을한빅토르위고의소설속인물처럼, 그수단은증오할만하다고해
도그정은오히려가련한것이다. 부정하고추악한수단에대한책임은목적
이아니라따로몰을곳이있다. 그것은주로사회나개인이몽매하여그들의
목적에혹독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우리들이처음부터큰공훈은사
소한잘못을돌아보지않는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지만, 하나의목적과이
상을위하여몰려서기도하고나아가기도하고죽기도하고살기도하는것
은인간사회의본분임을확신한다.

지금우리국민의실상이어떠한지보라. 하나의원대하고숭고한목적
을위하여진퇴하는자가있는가. 언제하나의원대하고숭고한목적을위하
여진퇴한적이있는가. 그이상과목적에열성적으로충실하지않으면, 마
침그것을가지고있어도홀연히도중이상실하거나기각되고마는것이다.
수단의난이도와속도에따라몇차례목적경을경신하는것이다. 이것은목적
을위하여수단이있는것이아니라, 수단을위하여목적을세우는것이다.
다시말해목적과수단이완전히전도되었다. 심한경우에는아무런목적도
없으면서목적에있는것처럼가장하여들개처럼방향하고장구벌레처럼
준동하기시작한다. 생각해보라. 정당의목적은이념과정견의실행이아
닌가. 하지만오늘날의정당은당세확장을위하여이념과정견을완전히희
생하지않았는가. 정치가의목적은인민의이익증진이아닌가. 하지만오
늘날의원정치가는지위와녹봉과권세를유지하기위하여인민의이익
을완전히희생시키지않았는가. 정치활동가도그렇다. 교사도그렇다. 승
려도그렇다. 학자도그렇다. 그들은목적과수단을완전히전도시켜버렸
다. 목적에충실하고열심인것이아니라오로지수단을표준으로삼아진퇴
하는국민은책임없는국민이다. 식견없는국민이다. 의지가박약한국민
이다. 경솔하고가벼운국민이다. 남을속이고자신도속이는국민이다. 예
로부터이와같은국민치고쇠퇴하여멸망하지않은예가없으니근심스럽
지않은가.

것을방관하는것은암살보다더큰죄악으로보았던것이다. 이것이어찌고
대순교자 martyr 의마음이아니겠는가.

그러므로우리들은민는다. 호시의암살은호시자신의행위도원인일
것이다. 이바소타로 (伊庭想太郎, 1851~1903) 의어리석음도원인일것
이다. 신문등의언론도원인일것이다. 하지만그들을이지경까지이르게
한근본원인은사회가판단과제재의힘을잃은데있다고하지않을수없다.

사회가판단과제재의힘을잃은것은부패와타락이고질병이되었기때
문이다. 그들은공의公義를모른다. 공익을보지않는다. 있는것은오로
지자기한몫의이익뿐이고권세뿐이다. 호시의행위에대해서는, 자기에
게이익이되면칭찬할뿐이고자기에게불리하면혈땀을뿐이다. 이런식으
로무순판단과제재를할수있겠는가. 절망한자가나오는것은피할수없는
일이다. 우리들은두려워한다. 사회의부패와타락이오늘날의추세로흘
러막을길이없다면, 비단한사람의암살자를내는데그치지않고장래에얼
마나많은허무당과많은무정부당을내게될지아직알수없다. 이것은마치
상한음식을먹고급성설사를하는것처럼오싹하지않은가.

바로그렇다. 단지군인을혈땀는것으로는전쟁을방지할수없다. 단지
노동자를책망하는것으로는동맹파업을방지할수없다. 암살자를공격해
도, 현사회의부패와타락을구제하여판단과제재의힘을회복하지않는다
면, 어찌암살을근절할수있겠는가.

그렇다면부패와타락을구제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가. 다른
길이없다. 지금의경제조직을근본적으로개조하고의식주에서자유경쟁
을폐지하는데있다. 생활의공공을제거하고금전송배풍조를몰아내는데
있다. 만민이평등하게교육받을자유를누리고, 사회적지덕을증진하는
데있다. 만민이평등하게참정권을누리고국가사회의정치·법률을소수
인사가독점하지않는데있다. 다시말해곧근대사회주의를실행하는데있
다. 사회주의를실행할수있다면, 사회는충명한판단력과효과있는제재
력을발휘하게되어, 암살의죄악은절로근절되기에이를것이다. 이것은
경세經世의군자가마땅히숙려해야하는것이아니겠는가.

(〈暗殺論〉,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6 월 27 일 ~28 일)

무정부당제조

미국대통령이무정부당에게살해당한사건은우리국민들이반면교사로삼기에충분하다. 왜냐하면우리사회도지금활발히무정부당제조준비에급급하기때문이다.

나는잠시무정부주의의시시비비나이해득실을따지지않으려한다. 다만이이념을나놓고이와같은홍악한수단을강구하게만드는원인을생각하면, 그책임은다른곳으로귀결되는경우가없지않다. 어떤이는그것을미신이라고하고, 또어떤이는그것을광기라고하고, 또어떤이는그것을공명심때문이라고한다. 그렇다. 미신도있을것이다. 광기도있을것이다. 공명심도있을것이다. 하지만그들로하여금그토록광대한단결을이루어그토록굳게비밀을지키고, 그토록대담하고홍악한수단으로나가가도전혀후회하지않을정도로미신처럼만들고열광하게만드는원인을생각하면, 어찌대단히유력한동기가그들을몰아세웠다고보지않을수있겠는가. 유력한동기란무엇일까. 오늘날의국가사회에대한절망이그것이다.

오늘날의국가사회조직이일반인들에게얼마만큼복리를가져다주고있는지는의문이다. 정치자유, 학술진보, 기계발달, 풍부한자본, 생산증가는피상적으로보면일반인들의생활을고대봉건시대의왕후보다도더크게행복하게만들지않으면안된다. 행복하게만들터였다. 하지만실제는이와반대다. 세상은점점더악박해졌다. 생활은점점더곤란해졌다. 빈민은점점더증가했다. 죄악은점점더심각해지고많아졌다. 서양인은일찍이입바른말을하여의회는조세를늘리는도구라고했다. 조세를늘리는도구가인민에게무슨필요가있겠는가. 정치도학술도기계도자본도생산도오로지왕후를이롭게하고부자를이롭게하고관리를이롭게하고군인을이롭게할뿐, 추호도일반인들을이롭게하지않는다고한다면, 현재의국가사회에절망하는다수가생겨나는것도어쩔수없는추세가아닐까.

이와같은현상은비단무정부당뿐만아니라각계급인사들도마찬가지로인정했다. 이것을인정했기때문에노동보호주장도일어났다. 만국평화논의도제창되었다. 공산주의도설파되었다. 사회주의운동도전개되었다. 이것들은모두앞길에찬란한희망을크게품고지금의병적인현상을고치고자하는것이다. 무정부당도본래는이와마찬가지였다. 하지만국가사회의타락과죄악과곤란한생활이날이갈수록격심해지는것을보고그들은결국앞길의희망을포기했다. 그들은완전히절망한자들이되었다. 세상에절망한자만큼용기있는자가없고대담한자가없으며홍악하고사나운자가없다. 설령그들이홍포함을들고공명심으로나아갔다하더라도, 그들은이홍포함에기대지않고는공명을얻을방도가없다고생각할만큼절망했던것이다.

(蘇軾)은“천하의근심중에그렇게될지모르고그런것보다더큰것은없다. 그렇게될지모르고그러는것은팔짱을끼고난을기다리는것이다”라고했다. 그렇다. 우리국민은팔짱을끼고난을기다리는자가아닌가.

무릇흥분제를과다사용하는것은심기를일시에흥분시키므로좋지않다. 얼마후에혼미하고졸도하여인사를분별하지못하고, 겨우이것을각성하면마치여우에홀렸다깨어난것과같다. 지금우리국민은청일전쟁에서과도하게흥분했다가갑자기엄청난권태에빠져지쳐서쓰러진채로앞뒤를모르는지경에이르렀다. 그동안에도독이당신의재산을약탈하고있다. 도둑은당신의생명을빼앗으려한다. 하지만당신은마비되어알지못하고헛되이주식이오르기를꿈꾼다.

30년전자객이밤에교토기야마치木屋町の여관에서사카모토료마, 나카오카신타로등두무사를찌르고달아났다. 잠시후에하우타를부르며아래를지나가자는자가있었다. 나카오카가상처를어루만지며한탄하기를, “지사는홀로고통을받는데세상사람들은평온하게행락을즐긴다. 세상은다양한것일까”라고했다. 우리들은오늘날이를깊이한탄한다. 아아, 국민이빨리혼수상태에서깨어나지않는다면국가의앞날은어찌될까.

(〈國民の癡癡〉, 「中央新聞」 1897년 (메이지 30년) 5월 17일)

목적과수단

천하에근심스러운것가운데사회의인민이목적과수단을혼동하고전도轉倒하는것보다심한것은없다. 사람이먹는것은살기위해서다. 하지만요즘사람들은먹는데급한 나머지, 거의먹기위해서사는느낌이든다. 무인이싸움을익히는것은혼란한세상을고쳐바른길로되돌리기위해서다. 하지만요즘사람들은공명에급한 나머지, 거의국가의변란을이용하는듯하다. 의사는병을고치기위함이다. 하지만요즘사람들은사업을번창시키는데급한 나머지, 거의전염병의유행을바라는듯하다.

무릇끓거나포식하다가잠에빠져과거도없고미래도없이아득한꿈처럼생을마감하는것은금수나어패류다. 인간이일정한이상과목적을가지

(〈理想なき國民〉,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5 월 14 일)

마비된국민

물과불이몸에닿아도뜨거운지차가운지도모르고, 칼과살이찔러도 아픈지가려운지도모른채흐릿한정신으로잠들지않고서꿈을꾸는, 흡사 중산中山의술을마시고천일을취해있는듯한것이우리국민의오늘날상태가아닌가. 그들은정신적으로마비되어버린것이다.

본래우리국민은감성이매우예민하고정열은가장왕성하다고칭찬받는다. 인의仁義를위하여자기한몸돌보지않고충애忠愛를위하여죽음을가벼이여기는데이르면거의광인같은정도다. 이러한광인들이자주배출된것은우리일본국사國史의광채로서우리가군자국임을자랑해마지않는까닭이었다. 보라. 우리가청나라를이긴것은본래육해장병들의지혜와용기덕분이지만, 절반의공과는우리국민모두가열광적으로대처한데있다. 전후에치롤씨 (Ignatius Valente Chiról, 1852~1929) 가청나라를떠나서일본으로건너가니날이밝은것같은느낌이든다고경탄할만큼명예를떨칠수있었던것은오로지우리국민이애국심을실천하는기운이유례없이충만했기때문이다.

그이후불과 3 년이지난오늘날, 마치불과같았던애국심의기운과열광은지금어디로갔는가. 정부는황금으로우리헌정을유린하고, 의원은대의의책임을헛되이하여권세와이익에광분한다. 하지만국민은여전히부패에분노하지않는다. 국민이재산을내던지고목숨을걸어연은전승의명예는진흙탕에쳐박아두고문명의나라는홀연히야만의땅이되려한다. 하지만국민은여전히퇴보를우려하지않는다. 정부는상공업보호에목숨을걸고일종의중상주의정책을시행하여자기사욕을채우느라급급하다. 하지만국민은여전히위태로움을느끼지못한다. 재상이부덕하여풍속이나날이타락하여남편을죽이고부모를죽이는범인이나오는데도국민은여전히말세적현실을슬퍼하지않는다. 무릇우리정계의부패, 경제의불안, 도덕의타락이나날이심해져서모든것이국가를위급한운명으로몰고가지않는것이없다. 하지만우리국민은여전히거의감지하지못하는것같다. 국민의마비가이러한지경이라면끝났다고보아야할것이다. 고대로마는이리하여멸망했다. 오늘날청나라는이리하여멸망하려한다. 소식

쥐와닭은옷이많은곳에는흑사병이쉽게전염되었다. 국가와사회가불결하여절망이라는쥐와닭은옷이많은곳에는무정부당이라는병균이많이들어온다. 그리하여무정부당은유럽대륙에많았다. 하지만사회제도를개혁하는데대단히고심했던영국에는그해악이심하게창궐하지는않았다. 지금미국또한이홍포함을맞보기시작했다. 이것은무정부당이만연하는해악이가공할만한것임을알려주는한편으로, 어떤면에서는미국의최근정책이얼마나무정부당의전염을유발시키는경향이있는지를충분히상상하게한다.

한편우리일본을보라. 우리일본의수도, 의회, 정당, 교육, 경제, 종교는얼마나국민전반의복리를증진하고있는가. 우리는화족의증가를보았다. 우리는벼락부자가된어용상인을보았다. 우리는군인의영광을보았다. 하지만국민대중은시시각각으로염증을느끼고있지않은가. 빈곤해지고있지않은가. 염증이빈곤은가공할만한절망으로한발한발다가가는것이아닌가.

예를들면아시오足尾광산광독피해지의인민을보라. 고가네가하라小金が原개간지의인민을보라. 그들의고생이나염증이나인내는지금거의극에달했다. 두세명인사의동정심이있을뿐국가와사회는완전히그들을버렸다. 그들을절망하게만들지않는것도오로지중이한장차이일뿐이고, 무정부당으로만들지않는것도오로지중이한장차이일뿐이다. 하나를보면만사를헤아릴수있다. 비단그들에게만해당되는일이란법은없다. 그들에게이토록냉혹한사회는모든방면, 모든계급에게도마찬가지로냉혹할수밖에없다. 아시오와고가네가하라에무정부당을제조하고돌아보지않는국가가어찌일본전국에무정부당을제조하기를꺼리겠는가. 만약우리국가와사회가오늘날과같은상태를막지못한다면, 나는머지않아일본도무정부당산출지에등극할것임을믿는다. 아아, 무섭고도두려운일이아니겠는가.

그렇다. 무정부당의해악은가공할만하다. 하지만그들을이렇게만드는국가와사회해악은더욱더가공할만하다. 이것이치안경찰법하나로무정부당을방치할수없는이유다.

(〈無政府黨の製造〉,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9 월 20 일)

위험한국민

외교는막중하다. 내치는이보다더막중하다. 다사다난한외교는위험하다. 문란한내치는이보다더위험하다. 그리하여내치에서국민의모든이익과행복을오로지외교의희생으로삼고자하기에이르면그국가가혁명이나멸망으로끝나지않는경우가거의드물다. 이것은국민이지금깊이경계해야할사항이다.

로마의민정은내치의부패때문에무너졌다. 백전백승의율리우스카이사르도로마를구할수없었다. 카르타고는국민의타락때문에망했다. 15년간이탈리아전역을다스렸던한니발도나라를구할수없었다. 예로부터외적때문에멸망한국가가적지않다. 하지만그들이멸망으로치달을때내치의문란과부패가반드시앞서지않는경우는없다. 적어도내치가문란하고부패하지않았다면백만외적이압살해온다하더라도두려워할필요가없다.

무릇외적은무력으로소탕할수있다. 내치의부패와문란이극에달하면무엇으로소탕할수있겠는가. 혁명이아니면멸망만이있을뿐이다. 그러므로국가가무력을지지고무위를떨치는이유도오로지국민의원기가왕성하고재부가풍요로운데에서나오지않으면안된다. 실로내치가정제되고도의가두텢고풍속이너그러워농·공·상인이근면하게일할수있어야비로소무위를떨칠수있다. 만약그렇지않고인심이타락하고도의가퇴폐하고행정과재정이문란하고상공업이위축되고재산이고갈되는것이지금의조선이나중국같다면, 설령백만의뛰어난스승과견고한군함이있어도무슨쓸모가있겠는가. 그러므로타락한내정은다사다난한외교보다도훨씬위험한것이다.

그런데지금우리국민은이위험을무릅쓰고나아가고있다. 하지만자각하지못하고있는것은아닐까. 청일전쟁대첩은당시우리내정이아직오름세에있고기강이탄탄하고원기가왕성하고재산이풍부한결과였다. 하지만전후에우리국민은그뿌리를잊고끝만을쫓아오로지군대가많음을자랑하고군함의크기를신뢰하여, 국가의영구불변의업이라여긴다. 그리하여갈수록무력을써서국기國旗의영광을빛내고국위를드높이려고한다. 그성과를어찌알겠는가. 인심이극도로타락하고재산이고갈되어사회적·정치적으로죄악과빈곤이천하에넘쳐나고국기의영광은진실로한순간의허영이고국위는한순간의허위에지나지않다는것을어찌알겠는가.

보라. 의회에서만취하여다수의결해도나그에따르지않겠다고망언을하는재상이있다. 중의원은헌법을논의하는장이아니라고갈파하는대신이있다. 헌법은대권의일부다. 폐하는그것을따를필요가없다고외치는의원이다. 한편에서도네가와利根川강개축 6 백만엔을의결

가려고하지않으면안되는것처럼, 인간은당장에이상에도달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되도록그것에다가가려고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이것은칼라일이『영웅숭배론』에서설파한바가아닌가. 그렇다. 국민의이상은단지그국민의정신적건축의법도일뿐만아니라, 사상적의식주다. 그러므로이상없는국민만큼신뢰하기어려운것이없고이상에다가가려고애쓰지않는국민만큼불쌍한것이없다. 그들은바로건축의법도를모르는건축공이기때문이다. 의식주를공급받지못하는빈민이기때문이다.

우리일본이과거 50 년간, 미증유의진보를이룩까닭은우리국민이원대하고송고한이념과이상을품고오로지그지도에따라용맹정진하여몰려서지않았기때문이다. 이이념과이상은한때준황양이라명명되었다. 한때는개국진취라명명되었다. 한때는민권자유라명명되었다. 때와장소에따라형태와이름을달리했어도, 모두원대하고송고한이상이일관되게있었기에동양의일대문명국을건설할수있었다. 우리국민이이념과이상에충실했기에, 때로는낭인으로서, 때로는정치범으로서, 때로는정당인으로서, 때로는상공업자로서물불안가리고위세와무력에굴하지않고생명을걸고재산을내던져서찬란하게빛나는메이지역사를이룰수있었던것이다. 그런데지금언어는어떠한가. 그들처럼이념과이상에충실한국민은이미쇠잔해져서행동하기힘들고, 이를잇는신국민, 즉요즘청년들의뇌리에는고원한이념과사상은편린도찾을수없다.

보라. 지금천하에는영원한이상이없고다만눈앞의욕욕이있을뿐이다. 시시비비를보지않고이해득실을볼뿐이다. 도의를보지않고금전을볼뿐이다. 그리하여 50 년동안자유, 평등, 박애를향해맹렬히나아간일본이이제오히려전제, 계급, 이기利己를향해달리는것이보이지않는가. 그극은바로부패이고타락이니지극히개탄할일이아닌가.

우리들은이미죽어가는노인에게이념과이상을실추시킨책임을묻는것이쓸모없는일임을안다. 다만대개지금의청년이라도한이념도없고이상도없이취생몽사하는자들이니, 아아누구와함께천하를경영할까. 에드먼드버크(Edmund Burke, 1729~1797) 가나이 30 에여전히미천한한낱서생으로글을팔아겨우생계를유지하고있었을때, 우연히해밀턴(William Gerard Hamilton, 1729~1796) 이 300 파운드의연봉을주며벗을끼게하고저작활동을그만두라고하자, 버크는분연히“내희망을가로막고내자유를박탈하여영원히내본령을없애려하느냐”고하며당장에해밀턴과관계를끊은것을생각한다. 아아, 우리나라의청년가운데희망과자유, 본령을위하여눈앞의영리를버리는버크처럼될수있는사람이 과연몇이나있을까. 우리들은이상의일본이완전히물질의일본으로타락해버린것을보고, 국가의앞날이불안함을마음깊이느낀다.

그사회와국민이질서도없고덕의도없고이상도없고신앙도없이부패하고타락하여하루살이나구더기같다고할수있는가. 행해지는정치가임시변통식정치일뿐이다. 호도하고미봉하는정치일뿐이다. 부패하고타락한정치일뿐이다. 내각고가의회를, 국민과사회를그저하루살이나구더기처럼꿈틀거리며살게하는정치일뿐이다. 현재우리일본의정치가바로 이와같은상태에있지않은가.

우리일본의정치가더욱더곤란에빠지는것을보라. 우리외교가착실히실패로끝나는것을보라. 상공업의날에위축되는것을보라. 도덕의달에퇴폐하는것을보라. 우리정치의힘은이런현실을얼마나구할수있는가. 얼마나회복시킬수있는가. 원로나의원이나정당원이나학자가논객이수년동안이문제를고민하며거의미칠지경이었다. 그리하여시행하는것은더욱더악화되고있다. 더욱더해로워지고있다. 폐단이시시각각으로늘어나는것이보일뿐, 조금도성공을거두지못하는것은왜일까. 그들은정치가만능의힘을지녔다고여기고정치에만의지하여만사를해결해야한다고보기때문이다. 종교도정치에지배되고, 교육도정치에지배되고, 상공업경제도모두정치의은혜를입게하려고한다. 왜모르는가. 지금의정치는우리국민의부패와타락을늘리는기관의기름에지나지않음을. 이것이초래하는결과는헛되이진흙을파서파도를일으키는것에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일본사회의발달, 국민의번영을희구하는자는오늘날의정사政事에의지하는것이완전히무익한것임을깨닫지않으면안된다. 우리정치가선량하기를바라기전에, 우선우리사회와국민에게덕의가있게하고신앙이있게하고이상있게하고제재가있게하고신용이있게하고그런뒤에비로소정치를행해야한다. 그렇다. 오늘날의현실을개탄하는어진지사들은정치이외에서전장戰場을발견하지않으면안된다. 천하의정치에광분하는청년들이여, 크게속려하기를바란다.

(〈非政治論〉, 「萬朝報」 1899 년 (메이지 32 년) 1 월 13 일)

이상없는국민

건축공이벽돌을쌓을때, 자전을쉬지않는땅과직각을이루어조금도오차가없는것은본래기대하기어렵다고하더라도, 되도록그각도에다가

하고한편에서그수원水源의산림을한날부호에게벌채하게하는정부가있다. 시정을장악하여자기집의이익을도모하는기구로여기는도당이있다. 지방의회에쿠데타를일으키는지사가있다. 당원과결탁하여죄인을비호하는경찰이있다. 우리군대에마소도먹지않는나쁜음식을보내는군관료가있다. 뇌물로미국의양을줄이는어용상인이있다. 위조주식은항상시장에횡행하고있다. 은행은자꾸파산으로치닫고있다. 자치제는완전히파괴되었다. 도의는완전히사라졌다. 경제계는완전히무정부상태가되었다. 그러므로도도하게저지하지못한다면국가가무엇으로설수있겠는가.

러시아가만주와조선을침략하는것은위험하다. 하지만우리무력은그들을간단히소탕하기에충분하다. 내치가부패와문란에이르면그것보다더위험하므로내치의구제가그것보다더급하다는것을깨닫지않으면안된다. 우리나라는여전히열성적지사와비분강개하는청년이많다. 하지만우리들은그들이뿌리를잇고끝으로달려, 외교때문에광분하고전쟁때문에광분하여모든행복과이익을희생하고돌아보려하지않음을안타까워하지않을수없다. 하물며다사다난한외교와국위를드높이는것은예로부터의롭지못하고부정한전제정치가가항상국내의인심을전향시키고현혹시켜하룻밤권세를훔쳐이욕과야심을채우는도구로사용하지않았는가.

세상의열성적인지사청년들이여. 이제국가백년의대우환은외부에있는것이아니라오히려내부에있음을알라.

(〈危險は内に在り〉, 「萬朝報」 1901 년 (메이지 34 년) 4 월 2 일)

월폴정책

영국사를읽다가로버트월폴경에관한사항에이르러서글피탄식한다. 그는의원매수한탓에천하의공격과매도를한몸에받았고, 그주검은지금도여전히역사가들에게채찍질당하고있다. 하지만오늘날우리나라의실상과자세히비교해보면더욱더전율할만한것이있음을느낀다.

월폴이매수한것은죄임에는틀림이없다. 하지만당시그는독으로써독을제압하려했다. 왕권은이미쇠퇴했지만국민여론은아직진작되지

않아서 천하의 위력은 오로지 의회가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조직은 과두제적이고 의사議事는 비밀스럽고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을 때, 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의 발호를 억누를 길이 없음을 알았다.

대개 16 세기 이전의 의회는 완전히 왕권이 좌우하는 곳이었으므로, 인민이 선출하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때에 정치가는 오로지 왕가의 신임을 얻어 곧바로 그 뜻을 이루는데만 족했다. 찰스 3 세 시대로 내려오면, 의회의 권위가 왕성해지고 왕권은 오히려 의회에 좌우되었다. 그리하여 인민이 선출하지 않은 의원이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권세를 이용하는데 꺼릴 것이 전혀 없었다. 아니, 인민이 선출한 의원이라 해도 오늘날처럼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유권자들은 날마다 연설, 토의, 투표여하를 듣고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론의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다. 그런 탓에 당시 정부는 일을 벌이고자 하면, 왕가의 신임도 이미 신뢰하기 힘들고 인민의 후원도 한기 달만 한 것이 못되니, 오로지 하원의 속소리에만 사가 달려 있을 뿐이었다. 정부가 의원에 뇌물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니, 의원도 모두 성인군자가 아니어서 그랬다기 보다는 뇌물을 배척할 재력이 없었다. 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심히 정계政界의 공덕이 부패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 제도를 보라. 월포 시대와 같은 장애는 전혀 없다. 정부는 성명聖明보필의 책임을 질 뿐이지, 중의원의 결의에 따라 진퇴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중의원의원은 월포 시대와 달리 모두 인민이 선출한 의원이다. 그리하여 비리에 빠진 것을 보면 몇 번이든 해산을 주청奏請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정치가는 적어도 군주의 신임과 인민의 후원을 얻으면,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중의원의 전횡적 반대를 우려할 필요는 추호도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원매수, 당원임명수단이 아니면 자신들의 의견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군주의 신임이 없고 인민의 후원이 없는 탓인가, 기획이 의롭지 못하고 부정한 탓인가. 아니면 용기 있는 결단을 못내리고 지능이 없는 탓일 수밖에 없다. 이것만으로도 정치가의 자격이 없다. 그 무력함은, 자리만 차지하고 하는 일 없이 녹祿만 받아먹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물며 그 정책이나 날이 관민의 부패를 촉진시킨 죄악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무릇 이러한 정치가가 의원매수 같은 부패한 수단을 강구하는데도 지금 까지 여전히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나는 우리 국민의 무력함을 깊이 슬퍼한다. 아니, 이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부패와 사회의 타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회는 월포 시대 처럼 의사議事 진행을 밀실에서 하지 않는다. 국민은 밤낮 의회의 행동과 말을 보고 듣지 않는다. 의원은 모두 국민에게 진실을 호소하여 선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절개를 꺾고 도리를 팔아 오로지 황금을 위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희생하는 것을 업연히 의심하지 않는 것은 왜인가. 매콜리 경이에 전에 월포를 평하여 “가나날리 부패수단을 행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받은 모든 매도와 공

세계적이다.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이다. 본능적이지 않고 심리적이다. 살벌하지 않고 대단히 자비롭다. 국기의 영예가 아니라 사회와 인생의 광명이다. 적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동정이다. 그러므로 위대할 뿐이다.

무릇 웅대하고 고원하고 준수하고 비장한 것을 찾는다면 굳이 전쟁을 칭송할 필요는 없다. 문학의 바이블을 보라. 법화경을 보라. 평화를 씨실로 삼고 박애를 날실로 삼는다. 누가 이것을 웅대하고 고원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두보와 이백은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여 인민의 평화를 희구했다. 누가 그것을 준수하고 비장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나는 본래 전쟁을 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를 찬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 삼라만상은 자유롭게 제물을 취하고 재료를 뽑고 스스로 책임진다. 전쟁도 괜찮다. 평화도 괜찮다. 무용도 괜찮다. 검이나 창도 괜찮다. 주판도 괜찮다. 베이징도 텐진도 괜찮다. 하코네箱根도가 마쿠라鎌倉도 괜찮다. 다만 허위적, 선동적, 야만적이지 않고 진선미를 갖추고 자비롭고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것을 기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헛되이 전쟁을 장려하고 군인에게 아부하는 것을 능사로 한다면, 우리 문학을 멸망시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전쟁 문학일 것이다. 그렇다. 지금 우리 문단은 백명의 키플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톨스토이를 갈망한다. 작가와 비평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所謂戰爭文學〉, 「日本人」 1900 년 (메이지 33 년) 9 월 5 일)

비정치론

정치를 믿지 말라. 정치란 만능이 아니다. 사회의 발달과 국민의 번영이 오로지 정치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다.

정치가 사회와 국민에게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불가결한 요건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대의 정치의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란 확실히 그 사회와 국민이 지닌 성격과 의지의 반영이다. 단지 그 사회와 국민이 스스로 편익이라 여기고 선량하다고 믿는 것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그 기관에 철하는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할수있는가. 야만적전쟁은어찌면장려할수있다. 문명적평화는과연어디에서유지될수있는가. 동물적감정은어찌면진전될수있다. 도덕적상은과연어디에서유지될수있는가. 그가설파하고울조리는것이이미진아니고선도아니고더욱이미를얻을수도없다면어찌문사와시인이책무를다한다고할수있는가. 어찌진정한문학의가치를갖추었다고할수있는가.

그리하여애국심장려를목적으로하는문학이만약성과를올렸다고한다면, 그성과는곧천하의사람들에게전쟁의유쾌함을느끼게하고전사의명예를흠모하게하고수억의재화와수천의생명을낭비하고진보를저해하고학술을위축시키고몇몇무단정치가의공명심을만족시킨것뿐이다. 이른바국위와국광의허영심을만족시킨것뿐이다. 적국에대한증오를만족시킨것뿐이다. 이것은비단순정문학의진가를결여했을뿐만아니라, 타락을표창하는것이다. 신성함을모독하는것이다. 존로버트슨은그의신작『애국심과제국』에서논하기를, “문명적생활과양립불가능한모든동물적천성에서발현되어나온것을최상의문학이라고정의하는것은문학의엄청난치욕이다. 전편을통틀어애정은없고, 있는것이라곤야만적인질투와증오의정뿐이니, 거짓박애로이것을덮는것은결합적정신의윤리상매우열등한형식이다. 문학이인생에서도덕적양식과쾌락의원천이까닭은결코이러한열등한감정을부르짖기위함이아니다”라고했다. 그렇다. 그들이말하는고무와격려에는박애적동정은눈곱만치도없고, 실로동물적욕정을선동하는것에지나지않는다. 이러한문학은우리나라문학의앞날을위하여결코축하할만한것이아니다.

그들은또한대개우리문학은너무섬세하고우미하고화려하여, 웅대하고고원하고비장하고준수한대작을전혀볼수없다, 그러므로전쟁을울고용사를노래할필요가있다고말한다. 이런목적은진정한문학을위해어느정도참된것이라할수있다. 그리고예로부터불후의문학이전쟁이나용사를소재로하는예가많은것도알고있다. 하지만그것들이불후의명작인까닭은동물적투쟁을고무하고찬탄했기때문이지아니라진정성에있다. 선함에있다. 아름다움에있다. 그리고이그상한생각을그리는것이희대의천재임을알아야한다. 그렇다. 예로부터뛰어난대작이라하는것은제목과소재를취하는데전쟁을필요로하지않는다. 전쟁장려를필요로하지않는다. 누가국기를노래하라고하는가. 누가조국을칭송하라고하는가. 보라. 호메로스는단지그리스를위해노래하지않았다. 셰익스피어는단지영국을위해이야기하지않았다. 단테는단지이탈리아를위해노래하지않았다. 햄릿이나리어왕이나오셀로가불후의대작인것은영국의애국심을격려하기때문이지아니며, 호메로스의이름이송고한것은아킬레우스의분노와개선이아니라헥토르의고뇌와죽음에있다. 그렇다. 그리스문학이중후한것은티르타이오스의잃어버린군가에있는것이아니라, 비극에담긴깊은동정심과사상가의침잠에있다. 그렇다. 그들은국가적이지않고

격에상응하는것인지는의문이다. 사람이시대를초월하는덕성을갖추지못한탓에꾸지람을받는것은가혹하다. 선거구민의표를사는부도덕함은마치의회의원의표를사는것과같다. 양민에게 5 기니아를주는후보자는회의의원에게 300 기니아를주는사람과똑같이죄악을저지른것이아닌가”라고했다.

이미정세를달리하는우리의현내각에서는이와같이관대할수는없다. 하지만 300 기니아를받는국민은의회의원을심하게제재할수는없다. 후세의역사가가만약매콜리경처럼오늘날의매수정책으로이시대의부패상을추정한다면, 나는우리국민이어떤말로답할지모르겠다.

사물이부패하면벌레가생긴다. 한무리의벌족閹族정책은부패에생긴벌레다. 의회도그렇고국민도그렇고, 이미부패와타락이극에달해주의도없고이상도없고호미한상태로황금과이익을좇아내달린다면, 사쓰마薩摩든조슈長州든, 이토히로부미든오쿠마시게노부(大隈重信, 1838~1922) 든, 내각을몇차례바꾸고의회를몇회거처도, 대의제도는오로지형세만유지하고월필은여전히족적을꿀지않을것이다. 기세가극에달하면변한다. 이어서오는것은바로혁명이다. 이것은고금의역사책들에나타나는일치된견해이고지사들이경계해야하는것이다. 월필은최고의연설에서“반대당은세단체다. 하나는왕당, 또하나는이른바애국자인민당의불평분자, 나머지하나는청년 boy 이다”라고말했다. 월필내각의전복은청년 boy 의힘으로이루어졌던것이다. 피트의허나존슨의붓은모두당시월필의보이가아니었던가. 그렇다. 오늘날의흐름에서단지드높은이념과이상을품은순결하고활발한청년들이일어서지않다면, 우리사회를부패와타락속에서구할수없을것이다. 아아, 하늘은국가앞길을우리청년의어깨위에올려놓았다. 집에들어박혀책만읽는사람은당장베개를걷어차고일어서야할시절이아닌가.

(〈ワルポール政策〉, 「中央新聞」 1897 년 (메이지 30 년) 9 월 16 일)

일본의민주주의

“옛글을볼때마다생각하네, 내가다스리는나라는어떠한가를.”

“능라비단을겹겹이입어도생각나네, 추위를감싸줄신령조차없는신 세가.”

아아, 인민을불쌍히여기고국가를걱정하시는깊은마음이어찌이와 똑같겠는가. 우리는메이지(明治) 천황이지으신두편의시를볼때마다감개가무량해서눈물이복받친다.

남몰래생각전대동서고금의영주英主·현군賢君의덕이사해에넘치고은택이천년을떨치는것은, 모두인민을걱정하는깊은마음에서나오지 않은경우가없다. 그리하여우리조종열성祖宗列聖이오야시마에군림하여면면히이어온 2500 년동안이취지와정신은일찍이하루도쉽이없었다. 저닌토쿠천황이“백성들의부부가곧집의부”라고하셨고, 엔기延喜 치세(901~923) 의다이고천황이겨울밤에스스로옷을벗으셨던일등은 실로이취지와때를만나크게떨쳐일어난것이였으며, 우리들은이취지와 정신을이름하여완전한민주주의라부르는것이매우적당하다고믿는다. 본래그렇다. 그리하여우리의이른바민주주의가역사상유례없는광휘를 발한것은, 금상금상의유신중흥때였다. 무진년(1868) 3 월에황송하게도친히천지신명께서약하신〈5 개조서약문五箇條の御誓文〉을보라. 모든중요사항萬機를공개된논의公議로결정해야한다고하고, 상하가마음을하나로합해야한다고하고, 관무官武가하나가되어서민에이르기까지그뜻을이루게한다고하고, 천지의공도公道에기초한다고하고, 지식을세계에서취한다고한다. 어찌이것이이른바민주주의의신수神髓와정화精華를완전히발휘한것이아니겠는가. 우리들에게함부로건강부회한다고말하지말라. 메이지 6 년(1873) 에기도다카요시가유럽에서돌아와당국자에게건넌의견서일부는서약문의뜻풀이로볼수도있다.

무릇정규政規는그나라의국시에따라정한다. 조정관리들의역측에 따라헛되이우열을가릴수없다. 천하의대소사는이것을조치의준칙으로 삼는다. 사려깊고원대한기약은억조사민億兆士民이누가감히천자의깊은뜻을황송히받들지않겠는가. 다만, 문명국은군주전제를하지않고, 전국의인민이일치화합하여그뜻을이루어국무를조례하고, 그후에재판을과하고그것을한부서에위탁해서명명하기를정부라한다. 관리에게각각그일을맡게한다. 관리들은또한각각일치화합하여민의에따르지않는다면감히조치를멋대로할수없다. 정부의엄밀함은이와같다. ... 황송하게도전날의조지詔旨는천하를천황가문의사유로삼지않고, 백성과함께있고백성과함께지킨다고선언했다. 대개천하의사무가천하의인민과관련이없는것이하나도없으니, 천하의인민도스스로천하인민이다할의무가있다. 어찌그냥순순히조정의명령을듣고분주히움직이며명령에따라행동하기만할수있겠는가.

아아, 지금의대신, 지금의관리, 지금의원, 지금의국민은다시이 글을읽고과연무엇을느낄지. 저서약문은이와같은취지로만들어졌고, 유신중흥사업, 제반개혁은이와같은정신으로착착실행되었다. 아니, 이

음에서우러나그렇게하는것이아니라, 단지사이비애국자인정촌관리등의협박적명령에강요당해귀중한시간을버리거나파괴같은돈을내는데에외가없다. 그리하여입영자일가도경례에보답하는향연을마련하느라부득이하게말도안되는비용에울지않았는가. 이것은심한악폐다. 각정촌의관리와지위있는인사는이이유를깨닫고깊이경계해야한다.

(〈何の名譽ぞ〉, 「萬朝報」 1900 년(메이지 33 년) 1 월 23 일)

비전쟁문학

최근에우리문단을향해전쟁을제목으로하고군인을소재로한뛰어난 대작을내도록재촉하는사람이많다. 그리하여작가들자신도이방면으로크게힘을쏟으려하는것같다. 이것이우리문학의앞날을위하여이롭지않다고할수는없다. 하지만나는해로움이더심각함을두려워한다. 왜냐하면세상에서말하는전쟁문학은대개전쟁을장려하고군인에게아부하는 도구가되는경향을띠지않는경우가드물기때문이다. 나는이점에대해지금의작가와비평가에게숙려를촉구해야한다고느낀다.

그들은활발하고장쾌하게붓을휘둘러전쟁을칭송하고군인을찬탄하는것이국민의애국심을격려하고의협심을고무하기위함이며, 또한이것은문사나시인이국민으로서마땅히해야하는책무라고주장한다. 이리하여그들의붓은칼과창이태양에빛나는장관을묘사하면서살육의참상은묘사하지않는다. 적국의증오스러움을설파하면서병사의애처로움은설파하지않는다. 전리품이거액임을설파하면서약탈의죄악은설파하지않는다. 일개장군의성공을설파하면서수많은병사들의수척함을설파하지않는다. 전사戰死의명예로움을설파하면서그이름이당장에소멸됨을설파하지않는다. 국기의광영을설파하면서인민의고통은설파하지않는다. 영토의확장을설파하면서소모되는재화는설파하지않는다. 야만의경쟁을즐기면서문명의파괴는슬퍼하지않는다. 그러고는애국심을격려한다고한다. 국가를사랑하는마음은어찌면격려할수있다. 그러나인류를사랑하는마음은과연어디에존재할수있는가. 강자와승자를찬미하는마음은어찌면고무할수있다. 약자와패자에대한동정은과연어디에존재

단 오류일뿐만 아니라, 이 오류에서 생기는 폐단은 국가와 사회의 진보의 기운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고대에 무사·농·공·상에 비해 많은 명예와 권리를 누리던 것을 지당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봉건적 사상, 미개적 사상, 야만적 사상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부정하고 의롭지 못한 것임을 인정한다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민의 권리와 무가평등함을 인정한다면, 군인의 명예와 지위와 권리가 유독 보통국민과 다를 이유가 있는가. 그들은 국가를 지킨다고 칭송 받는다. 하지만 국가는 군인만으로는 서지 않는다. 군인이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명예라고 한다면, 군인을 부양하는 농·공·상도 마찬가지로 명예가 아닌가. 위에 대비하는 고양이는 과연 그 집의 하인보다도 명예로운가. 도적에 대비하는 개는 과연 그 집의 하인보다도 명예로운가. 우리들은 아직 군인이 검과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통 인간 이상의 명예와 존경을 의미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사이에 무사를 존엄하다고 보는 야만적 사상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천하를 얻은 번벌의 원흉들이 일찍이 병마(兵馬)의 권한을 도당의 수중에 모아, 자신들의 위력과 복덕(福德)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은 지 오래다. 심지어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우리나라 군인의 세력은 더욱 더 커져 제거의 절정에 이르렀고, 국민들은 국가를 곧 군인의 국가라는 생각으로 앞다투어 군인의 발아래 엎드리게 되었다. 그 결과, 군인들 스스로도 거만하게 남을 업신여기는 기풍이 생겨나, 군인이 아닌 자를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본다. 그렇게 거만하게 남을 업신여기다 보면 멋대로 행동하며 사치를 부리게 되고, 멋대로 행동하며 사치를 부리다 보면 부패하여 타락하게 된다. 군인이 풍속을 퇴폐적으로 만드는 원인의 하나라는 것은 유럽 각국의 정론이며, 예로부터 전승국의 풍속이 순식간에 퇴폐하고 도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오로지 군인의 권세가 과대해지는 탓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청년들이 병사로 입영한 뒤, 군대 안에서 받는 가혹한 속박의 반동으로 군대 밖에서 더욱더 방종해져서 사회의 부패한 공기에 감염되고, 그런 상태로 귀가한 후에 지방의 순박한 풍속을 깨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명예 있는 군인이다. 국가의 파수꾼이다”라고 말한다. 정춘인민이 모두 이것을 보고 군이 비난하지 않는다. 비난하면 비애국자로 책망 받는다. 아아, 양민을 무뢰한으로 바꾸었다. 선량하고 순박한 기풍을 거만하게 남을 업신여기고 멋대로 행동하며 사치를 부리는 행실로 바꾸는 것이 무슨 명예인가. 무슨 존귀함인가. 무릇 유명한 청년들이 모두 전장의 공훈이라는 허영에 눈이 멀어 앞다투어 몰려가고, 일반인민은 스스로 비굴하여 군인을 받들기에 바쁘다. 봉건시대의 하인과 마찬가지로 한다면 어찌 이것이 국가의 경사인가. 이것이 군인에게 과도한 명예를 주고 과도한 존귀함을 유지하게 하여 얻은 가공할 만한 결과다. 그렇다. 입영하는 병사에게 과도하게 경례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허영이다. 실로나쁜 일이다. 하물며 정춘인민이 모두 기꺼운 마

것은 고금의 조종열성(祖宗列聖)이 오래도록 일관되게 유지하신 큰 이념이고, 그리하여 일단 금상이 영매한 자질을 얻어 유례 없는 광휘를 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민주주의 정치에서 활동한 세력이 파죽지세로 내놓은 조칙, 포달(布達), 보고서 등을 보면 어느 하나 민의를 중심으로 하는 글자가 없는 것이 없었고, 공의(公議)와 여론이라는 말을 내걸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마침내 보상(輔相), 의정(議定), 참여(參與) 같은 대신조차도 한때 공선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얼마나 번성한가.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진보와 흥룡이 유럽 강국과 각축할 수 있게 된 까닭이 아닐까 하다가 깊은 예지(叢)에 생각이 미치면 우리들은 항상 감개 무량해서 울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이른바 민주주의를 공화 정치의 전유물로 보고 군주 정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요순은 실로 민주주의자였다. 우(禹)·탕(湯)·문(文)·무(武)도 민주주의자였다. 예로부터 군주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열심히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대표하고 실행한 것은 우리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만 세일계의 황위(寶祚)가 천하(宇內)에 탁월하고 무궁무진하게 번성하는 까닭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그렇다. 이것을 민주주의라 명명할 수 없다면, 충군주의라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박애주의라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중요 사항(萬機)에 대해 민의를 중심으로 하시는 서약문, 기도다카요시가 일컬은, 백성과 함께 있고 백성과 함께 지키시는 취지와 정신은 명백히 일원(一源)과 그 빛을 닮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국시(國詩)요 국체(國體)다. 이것에 등을 돌리고 이것을 기피하는 자는 폐하의 죄인이다. 그리고 조종열성의 죄인이다.

(〈日本の民主主義〉, 「萬朝報」 1901년 (메이지 34년) 5월 30일)

외교상의 비입헌국

나는 우리 일본이 외교상으로는 여전히 비입헌적·전제적 영역을 탈피하지 못했음을 슬퍼한다.

블라디미르는 최근에 청일전쟁이 후러일 관계를 평하여 “러일 두 나라 국민의 절박한 감정에서 생겨나는 위험은, 다행히 두 나라의 총의(叢意)의 마음

작렬함으로써배제될수있었다. 두나라에서군주라는한마디는당장두나라국민이법률로기꺼이따른다. 차르와미카도도평화와우애를희망하므로러일간에결코충돌이있을우려가없다. 총명한군주가결정하는것은감정적이고무책임한인민보다도훨씬달견達見이다.”라고언급했다(『태평양상의러시아』, 329 면). 아마도그러할것이다. 위로총명한천자가있고아래로충성스러운인민이있어서, 외국과평화와우애로교류하는것은물론깊이경하할만하다. 하지만한편으로는다소우려할만한점이없지않다. 나는천황에게우리헌법에서선전강화권이있음을안다. 그리고군주독점적외교가우리헌법의자구에도순되지않음을안다. 더욱이우리국민이대권분배를바라지않는다는것을안다. 하지만이와같이한나라의외교가항상국민의의사를도외시하고전혀알려지지않는다면, 이것은과연만세를통해지킬만한제도인가. 이것이과연각국의국민적외교와대적할수있는것인가. 이것을과연문명적외교라할수있는가. 이것은그정신에서비입헌적외교가아닌가. 이것은전제적외교가아닌가.

우리황상은영매하고입헌적군주로서자질이풍부하여공의를중시하고여론을취함에소홀함이없다. 우리국민이마땅히안심하고저절로천황의법을따라야한다는것은블라디미르가언급한대로다. 또한랴오동遼東반도반환건과같은것은한편의조칙으로두나라간의위험을배제했다는것도블라디미르가언급한대로다. 하지만우리당국대신들은우리천황의예지를이해하지못하고항상국민의의사를도외시하고국민이전혀알지못하게하고있다. 다시말해우리국민의눈을가리고귀를막아비밀을 지키기위하여항상전제적, 비입헌적, 비문명적외교를펼쳐서국가가크게폐해를입는것은반론의여지가없는사실이다. 나는여기에극명한예를한두가지들고자한다.

시모노세키下關조약당시우리국민은이토히로부미전권등이과연어떠한담판으로무엇을요구하였으며그조약이어떠한결과를낼는지불행히도오래도록알지못했다. 다만우리황상이이조약을칭찬한것을듣고그위대한성과를상상할뿐이었다. 그런데전승국이자조약지정자인일본국민이조약에대해모르고있을때, 패전국인청국인과국외자인유럽인은이미이것을들을수있지않았는가. 보라. 저단판의기록과왕복문서는실로「베이징텐진타임스」가처음으로천하에공개하지않았는가. 우리정부가이것을발표한것은이미기사가강호에나돌고오랜시간이지난후가아닌가. 만약「베이징텐진타임스」가전하지않았다면, 우리들은영원히세부사항을알수없었을지도모른다. 나아가삼국간섭문제가일어나자, 우리들은겨우외국전보와외국신문을통해그사정을상상할뿐이었는데, 문제가진행중이었을때는물론이국랴오동반도반환조칙이공포되어시국이완전히종료된뒤까지도우리정부는우리신문잡지가이면의사정을보도하고평론하는것을허락하지않았다. 작년의화단창궐이극에달했을때, 우리들은오로지서구신문으로영국과일본두나라가교섭했음을알았

전쟁이명예로울수있는경우는국가의문명을위한이익이손해에비해큰데있다. 적어도보상하는데있다. 적어도이것을명심하는데있다. 청일전쟁은동양의영원한평화를위함이라고일컬어진다. 이와같다면우리들은우리의출병이명예로운것임을수증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한사람의히영을만족시키고한사람의야심을채우기위하여수많은목숨, 수만의재산을희생하고, 승전해도여전히장래의부패와많은부채와인민을도탄에빠뜨리는화를남기는것은결코용서받을수없을것이다. 맹자가일컬어“문왕이한번노하여천하의백성을편안케하였다”고했다. 그렇다. 전쟁은반드시천하의백성을편안케하지않으면안되며, 천하백성의자유를빼앗고행복을빼앗고생명을빼앗고재산을빼앗는전쟁은단연코명예가아니다.

최근에일시적감정과비루한허영심에들떠전쟁을좋아하는자가있다는소리를들었는데아마도사실이아닐것이다. 우리일본은군자의나라다. 인도의나라다. 전쟁에뛰어날지언정결코전쟁을좋아하는국민이아님을믿는다.

(〈斷じて名譽に非ず〉, 「萬朝報」1900년(메이지 33년) 9월 27일)

후대받는병사

최근에신병입영시기가올때마다입영자를낸각정촌町村인민은고액의비용을들여장엄한의식을갖추고화려한깃발을세워행렬을보낸다. 또환송을받는신병의일가도고액의비용을들여성대한향연을배푸는데, 이에응하는사람이도도히바람을일으킬정도로많다. 우리들은이것이단연코국가의경사가아니라고생각한다.

그들은생각건대, 군인이되는것은명예다, 축하해야한다, 군인은국가를지킨다, 군인에게경례해야한다고한다. 그렇다. 우리들도군인이명예가아니라고주장하는것은아니다. 군인에게경례할필요가없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군인이국민들의여러직업에비해더욱더명예롭고, 나아가깊은경례를받아야하는자라고여긴다면, 이것은큰오류다. 비

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국가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러운 것임을 느낀다. 아아, 어떠한 위대한 수완가가 능히 이것을 맡을 수 있을까.

(〈我財政を如何せん〉, 『萬朝報』 1900 년 (메이지 33 년) 4 월 10 일)

호전적인 국민인가

우리 일본 육해군의 장병들이 전쟁에 뛰어나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의 명예다. 예로부터 전쟁에 뛰어나는 자는 대개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모두 우리나라를 가리켜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전쟁에 뛰어나다는 것과 전쟁을 좋아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전쟁에 뛰어나는 것은 명예다. 전쟁을 좋아하는 것은 단연 고명예가 아니다.

군대는 살인 기계다. 천하의 부를 소비하는 도구다. 생산력을 고갈시키는 도구다. 군인의 허명을 증대시키는 기초다. 무단정치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인심이 부패하고 풍속이 퇴폐하는 원천이다. 전쟁에 뛰어나기 때문에 무위武威가 국광國光을 발하는 일은 있어도, 전쟁을 좋아하고 도나라가 망하지 않은 예는 아직 없다. 스파르타는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이었다. 하지만 그 명예는 아테네가 자유공화정치로써 철학, 문예, 미술, 도덕에 기여한 공적이라는 불후의 명예에 미치지 못한다. 로마의 명예는 정복한 땅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명의 찬연함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게 되자 그 문명을 다른 세계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노예수만 늘릴 뿐이었다. 많은 노예, 많은 신하를 얻기 위해 싸운 마음은 바로 그들의 문명을 멸망시킨 원인이 아닌가. 프로이센의 명예는 폴란드를 분할하고 오스트리아와 싸우고 프랑스와 싸운 데 있지 않고 독일의 국민적 통일을 완수한 데 있다. 일반 국민이 다수의 귀족이나 공후公侯의 질곡을 벗어난 데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전쟁은 처음으로 명예로운 전쟁이 되지 않았는가. 러시아의 무위가 세계를 제압하는 까닭은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다. 러시아는 유럽 각국에 비해 전쟁경험이 매우 적다. 그 나라는 항상 동북의 무인無人의 땅에서 자연과 투쟁함으로써 오늘날의 크기를 이루지 않았는가.

다. 이어서 영국 의원의 공문서로 일본에 출병을 촉구하고 재정보증도 서겠다는 공문을 공개했다는 전보가 도착하자, 경시청은 우리 신문기자들에게 그것을 보도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했다. 이튿날 금지를 풀었는데도 여전히 당국은 백방으로 이 주장을 말살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무릇 외국의 원공문에 발표된 사실을 굳이 우리 신문에 실는 것을 금지하는 처사는 오히려 웃음거리로 보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사실이다. 외교문제에서 서구 각 신문은 잘 알고 보도하고 비평하고 논할 자유가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각 신문과 우리 국민은 결국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항상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을 외국 신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나 알아도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저스틴 매카시는 일찍이 영국 외교를 논하여 “영국이 엄정한 입헌제도 아래 통치되는 입헌국임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는가. 하지만 외교정책을 행하는데 완전히 국민 여론을 도외시하는 것을 보면 유럽 대륙에서 몹시 전제적인 정부라 해도 영국 정부처럼 심한 예를 보지 못했다. 영국 정부가 어떠한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는 비단 보통인민뿐만 아니라 중의원의 원도 관리 외에는 전혀 알 수 없다. 관리들이 외의 의원은 보래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항상 임시방편적 답변을 들을 뿐, 정부 관계자는 대개 정부가 상해한 설명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 시대의 역사』 말권, 398 면). 또한 “보통인민이 모든 외교사정에 능통할 필요는 없지만, 각종 외교문제를 쉽게 알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여러 수령이 그들에게, 아니 의회에 있는 대표자들에게조차 특별히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에 관한 실상에서 보면 우리들은 영국이 대륙의 다수 국가들보다도 훨씬 비입헌국임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위의 책 402 면). 매카시는 수단 쿨라 왕정의 일거에 대해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보라. 당시 수단 쿨라 출병 건이 결정되자, 영국 하원에서는 질크나 존 몰리 등의 질문공세, 체임벌린이나 뱌퍼어의 설명반박, 연일 이어지는 용쟁호투의 장관이 극에 달했다. 영국의 외교는 비밀주의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청나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의회 광경은 필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피가 솟음 치고 살이 떨리는 느낌이 있었다. 또한 영국 정부는 매번 의원의 공문을 발표하여 외교문서를 공개했고, 외무장관은 해마다 시장市長의 연회에 참석하여 외교방침을 공개한다. 영국 외교는 심하게 비입헌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매카시는 영국 외교를 단죄하면서, 대륙의 전제정부들보다 훨씬 비입헌적이라고 했다. 만약 그가 우리 일본 정부의 행동을 봤다면 과연 뭐라고 했을까.

나는 일본 외교를 전제적이라거나 비입헌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초점을 크게 빗나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외교에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교는 반드시 국민적이지 않으면 안 되며, 국민의 신임과 후원이 없는 외교는 위험하다. 나폴레옹 대제와 나폴레옹 3세의 말년의 외교에는 이것이 없었다. 그들의 외교는 국민의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전복되어 국민이 등을 돌리지 않았는가. 매카시는 또한“(이 집트 원정에서)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들의 이복을 끈 것은 많은 영국민이 이 문제의 시시비비와 이해득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청나라 인민이 청일 전쟁의 이해득실에 무관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들은 전국민이 통치자의 외교 정책에 완전히 몽매하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임을 믿는다”고 했다(위의 책, 401 면). 그렇다. 국민을 소외시키고 무지하고 어리석게 만들어, 국가의 존망과 안위安危에 관련된 커다란 문제에 대해 국민이 항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보도하고 평론할 수 없다면, 지금의 청나라 인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비단 국민의 큰 치욕일 뿐만 아니라, 외교 당국에 대한 신임과 후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이보다 더 커다란 위험은 없을 것이다.

이제 동양의 풍운은 점점 더 거세져 우리나라도 각국 외교의 소용돌이에 휩쓸린다. 나는 정부 당국이 신속히 전제적이고 비입헌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국민적·입헌적 외교를 시도하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첫 번째 수단으로 적어도 공문서 발표, 외교 방침 연설과 신문 잡지에 대한 비밀 정도를 되도록 감소시키는 것 등은 가장 급하다고 할 수 있다. 감히 당국자의 숙려를 촉구한다.

(〈外交に於ける非立憲國〉, 「日本人」 1900년(메이지 33년) 10월 5일)

재정의 대혁신

군비가 충실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교육이 보급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외교가 부진하다고 말하지 말라. 실업이 위축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 재정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라. 무릇 한 나라의 정치 기관의 주축인 재정에서 확고한 이념이나 기초가 없고 계획 방침이 항상 동요하여 일정하지 않아, 당국자가 단지 호도하고 미봉하기에 급급한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는 다른 기관들의 발달과 진작을 바랄 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머지않아 일대 곤경에 처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것이야말로 깊숙이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마쓰카타 마사요시 백작(松方正義, 1835~1924)은 지금의 재정을 ‘짜 맞추기 재정’이라고 했다. 돌려막기다. 전후의 경비는 해마다 팽창하여 전쟁 이전에 8 천만 세수는 불과 5 년을 거치는 사이에 당장 2 억 5 천만이라는 거액이 되었다. 그런데 격변에 대처하는 데 정해진 큰 방침이나 계획이 없고 단지 돌려막기로 분주할 뿐, 상금을 유용하고 외채를 모집하고 필사적으로 5 개년의 토지세를 늘리고, 간장, 우편, 전신 등의 각종 세금을 늘리는 것을 보면 추태가 극에 달했다. 더욱이 이 일로 내각이 서너 차례 경질되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의회에 재정의 기초가 견고하다고 공언했다. 견고한가, 참으로 견고한가. 돌려막기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필요성은 끝이 없지만, 수단에는 실로 한계가 있음은 어찌 할까. 만약 오늘날과 같은 식으로 지나간다면 정말로 수습할 수 없는 대파탄을 겪을 것이다. 일정한 직업도 없고 생산도 없이 항상 고리 고리의 돈을 빌려 빚에 쫓기면서도, 나가서는 좋은 옷과 주색에 빠져서 도박을 일삼고 기양야해서 입만 벌리면 만금의 거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이른바 투기꾼의 생활을 흔히 보고 듣는다. 얼마나 위험하냐.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의 실상이 이와 닮지 않았는가.

우리 재정이 이와 같은 까닭은 일정한 이념이나 방침이 서지 않은 데 있다. 우리 재정의 가수의 완은, 아니 우리들의 지위와 권력은 각종 주식의 등락을 미리 알거나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 금리의 고저를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능히 세운의 대기大機를 간파하고 사회의 안배를 헤아려 한 나라 재정의 큰 이념과 방침을 세울 자질은 결국 기대할 수 없다. 그런 탓에 그들이 하는 일은 결코 과세가 공평한지 불공평한지를 묻지 않는다. 산업의 미래가 유익할지 불리할지를 묻지 않는다. 인민의 부담이 편중되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는다. 그들이 표준으로 삼는 것은 한때의 구멍을 때우면 족했다. 짜내기 쉬운 것을 짜내면 족했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면 족했다. 이리하여 토지세, 간장, 우편, 전신, 가옥, 담배, 새로 생긴 복잡한 세목稅目을 계산하고는 재정의 능사는 끝났다고 한다. 한 나라 정치의 능사는 끝났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간을 뇌물, 매수, 투기, 중상重商 보호를 위해 낭비하고는 반성도 안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재정이 가하는 것은 임시변통이다. 돌려막기다. 쪼쪼한 방식이다. 눈속임이다. 국고가 다 할 날을 기다려야 할 뿐이다.

한편 각 정당의 재정론을 보면,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념이 없고 방침도 없다. 어떤당은 단지 정부당이라는 이유로 칭찬할 뿐이고, 또 어떤파는 단지 반대파라는 이유로 반대할 뿐, 다른 것은 모른다. 이로써의 견과 운동이 항상 이리저리 돌려막다가 모순이 반복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천하의 신용, 국민의 동정을 잃게 되었다. 오늘날의 정당 이본령으로 하는 정신을 완전히 상실하여 커다란 산송장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앞으로의 정국을 맡길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군비라고 하지 말라. 교육이라고 하지 말라. 외교라고 하지 말라. 실업이라고 하지 말라. 당장 우리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큰 이념과 방침을